

석사학위논문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2024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윤 지 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경옥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The Psychological Capital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Human
Communication and Learning Commitment -

2023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예 술 대 학 원

뷰 티 예 술 학 과

분 장 예 술 전 공

윤 지 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경옥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The Psychological Capital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Human
Communication and Learning Commitment -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예 술 대 학 원

뷰 티 예 술 학 과

분 장 예 술 전 공

윤 지 우

윤지우의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김지현 (인)

심 사 위 원 이현주 (인)

심 사 위 원 박경옥 (인)

국 문 초 록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 성 대 학 교 예 술 대 학 원
뷰 티 예 술 학 과
분 장 예 술 전 공
운 지 우

본 연구의 목적은 미용을 전공하는 대학생 남, 여 254명을 대상으로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변인 및 조작적 정의와 설문 문항은 문헌 고찰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 설문과 자기기입식 설문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SPSS Ver. 26.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심리적 자본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 탄력성’으로 분류되었고 심리적 안녕감, 휴먼 커뮤니케이션, 학습 몰입은 하나의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 결과, 심리적 자본의 ‘자기효능감’은 ‘희망’, ‘낙관주의’, ‘회복 탄력성’, 학습 몰입, 심리적 안녕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심리적 자본의 ‘희망’은 ‘낙관주의’, ‘회복 탄력성’, 학습 몰입, 심리적 안녕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심리적 자본의 ‘낙관주의’는 ‘회복 탄력성’, 학습 몰입, 심리적 안녕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심리적 자본의 ‘탄력성’은 학습 몰입, 심리적 안녕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학습 몰입은 심리적 안녕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셋째, 변수들의 차이 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성별에 따른 개방적 의사소통과 타인 관점 이해에서 모두 여성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 심리적 자본의 희망과 회복 탄력성은 미혼이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감은 기혼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심리적 자본의 차이에서 자기효능감과 낙관주의는 50대 이상 그룹이 높게 나타났으며, 희망과 회복탄력성은 40대 그룹과 50대 이상 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에서는 50대 이상 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에서는 모두 50대 이상 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따른 심리적 자본에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는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그룹이 높게 나타났으며, 회복 탄력성은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그룹과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휴먼 커뮤니케이션은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그룹과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에서는 모두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그룹과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심리적 자본에서는 자기효능감은 서비스업과 전문직, 기타 그룹이 높게 나타났으며, 희망과 낙관주의는 전문직 그룹이 높게 나타났으며, 회복 탄력성은 전문직과 기타 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휴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기타 그룹과 전문직 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에서는 모두 전문직 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심리적 자본에서는 자기효능감은 100만원 미만 그룹이 높게 나타났으며, 회복 탄력성은 500만원 이상 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휴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100만원 미만 그룹과 500만원 이상 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넷째,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이 미치는 영향 파악을 위한 직접 효과와 매개효과의 가설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는 심리적 자본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가설 1-1 자기효능감, 가설 1-2 희망, 가설 1-3 낙관주의, 가설 1-4 회복 탄력성 모두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가설 2.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는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가설 2-1 자기효능감, 가설 2-2 희망, 가설 2-3 낙관주의, 가설 2-4 회복 탄력성 모두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가설 3.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은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는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은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가설 3-1 자기효능감, 가설 3-2 희망, 가설 3-3 낙관주의, 가설 3-4 회복 탄력성 모두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가설 4 미용 전공 대학생의 휴먼 커뮤니케이션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는 미용 전공 대학생의 휴먼 커뮤니케이션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채택되었다. 가설 5. 미용 전공 대학생의 학습 몰입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는 미용 전공 대학생의 학습 몰입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채택되었다. 가설 검증 결과 매개효과에서 가설 6.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휴먼 커뮤니케이션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휴먼 커뮤니케이션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은 채택되었다. 가설 7.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학습 몰입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학습 몰입이 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7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는 심리적 자본에 의해서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이 이에 상응하여 반응하게 되고 이러한 관계는 심리적 안녕감 증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심리적 자본인 자기효능감, 회복 탄력성, 낙관주의, 희망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면 타인과 소통을 하는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의 흥미와 학습 몰입도가 높아져 전공에 대한 확신, 대인관계, 학업관리,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심리적 자본은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이 향상되게 하고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미용 전공 대학생들이 뷰티 산업 시대에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미용전공대학생, 심리적 자본, 심리적 안녕감, 휴먼 커뮤니케이션, 학습 몰입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 2 절 연구문제	4
제 3 절 연구방법 범위 및 구성	5
1) 연구방법 및 범위	5
2) 연구의 구성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제 1 절 심리적 자본	7
1) 심리적 자본의 개념	9
2) 심리적 자본의 구성요소	10
제 2 절 심리적 안녕감	14
제 3 절 휴먼 커뮤니케이션	17
제 4 절 학습 몰입	21
제 3 장 연구 방법 및 절차	24
제 1 절 연구모형	24
제 2 절 연구가설	25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27
1) 심리적 자본	27
2) 심리적 안녕감	27
3) 휴먼 커뮤니케이션	27
4) 학습 몰입	28
제 4 절 조사 대상 및 측정도구	29

제 5 절 조사 분석 방법	30
제 4 장 연구결과	32
제 1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	32
제 2 절 기술통계	34
제 3 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38
1) 심리적 자본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38
2)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40
3) 학습 몰입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42
4) 심리적 안녕감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43
제 4 절 상관관계 분석	44
제 5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분석	46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46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62
제 6 절 가설의 검증	66
1) 직접효과	66
2) 매개효과	83
3) 변수의 영향력 분석	86
제 5 장 결 론	92
제 1 절 결론 및 제언	92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연구 방향	98
참 고 문 헌	99
부 록	105
ABSTRACT	111

표 목 차

[표 1-1] 측정도구 구성	5
[표 2-1] 심리적 자본의 개념	9
[표 2-2]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	16
[표 2-3]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20
[표 2-4] 학습 몰입의 개념	23
[표 3-1] 측정도구 구성	29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33
[표 4-2] 심리적 자본의 기술통계분석	35
[표 4-3]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통계분석	36
[표 4-4] 학습 몰입의 기술통계분석	36
[표 4-5] 심리적 안녕감의 기술통계분석	37
[표 4-6] 심리적 자본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39
[표 4-7]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41
[표 4-8] 학습 몰입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42
[표 4-9] 심리적 안녕감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43
[표 4-10] 심리적 자본, 휴먼 커뮤니케이션, 학습 몰입,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분석	45
[표 4-11] 성별에 따른 측정 변수들의 차이	47
[표 4-12] 결혼여부에 따른 측정 변수들의 차이	48
[표 4-13] 연령에 따른 심리적 자본의 차이의 차이	50
[표 4-14] 연령에 따른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51
[표 4-15] 연령에 따른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52
[표 4-16] 최종학력에 따른 심리적 자본의 차이의 차이	53
[표 4-17] 최종학력에 따른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54
[표 4-18] 최종학력에 따른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55
[표 4-19] 직업에 따른 심리적 자본의 차이의 차이	56
[표 4-20] 직업에 따른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57
[표 4-21] 직업에 따른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58

[표 4-22]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심리적 자본의 차이의 차이	59
[표 4-23]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60
[표 4-2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61
[표 4-25] 성별 및 결혼 여부에 따른 각 변수들의 차이분석	63
[표 4-26] 연령 및 최종학력에 따른 각 변수들의 차이분석	64
[표 4-27] 직업 및 월 평균에 따른 각 변수들의 차이분석	65
[표 4-28] 심리적 자본과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회귀분석결과	67
[표 4-29] 자기효능감과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회귀분석결과	68
[표 4-30] 희망과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회귀분석결과	69
[표 4-31] 낙관주의와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회귀분석결과	70
[표 4-32] 탄력성과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회귀분석결과	71
[표 4-33] 심리적 자본이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	71
[표 4-34]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의 회귀분석결과	72
[표 4-35]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회귀분석결과	73
[표 4-36] 희망과 휴먼 심리적 안녕감의 회귀분석결과	74
[표 4-37] 낙관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회귀분석결과	75
[표 4-38] 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회귀분석결과	75
[표 4-39]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	76
[표 4-40] 심리적 자본과 학습 몰입의 회귀분석결과	77
[표 4-41] 자기효능감과 학습 몰입의 회귀분석결과	77
[표 4-42] 희망과 학습 몰입의 회귀분석결과	78
[표 4-43] 낙관주의와 학습 몰입의 회귀분석결과	79
[표 4-44] 탄력성과 학습 몰입의 회귀분석결과	79
[표 4-45] 심리적 자본이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 ...	80
[표 4-46]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심리적 안녕감의 회귀분석결과	81
[표 4-47]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의 회귀분석결과	82
[표 4-48] 심리적 자본이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84
[표 4-49] 심리적 자본이 학습 몰입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85
[표 4-50]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이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결과	87
[표 4-51]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이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결과	88
[표 4-52]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결과	91

그림 목 차

[그림 2-1] 심리적 자본의 구성요소	10
[그림 3-1] 연구모형	24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K-POP과 K-드라마의 등의 한류 열풍과 SNS의 활성화로 K-뷰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용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함에 따라 미용 전문 인력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국내 2년제, 4년제 대학에 242개의 뷰티미용 관련 학과¹⁾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는 미용 분야가 실무기술 위주의 전문직에서 벗어나 산업 발전의 흐름과 시대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전문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와 기술 등을 기초로 하여 획일적이고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이론적 지식과 실무 기술 그리고 정서와 창의력을 갖춘 유능한 전문 인적자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론적 지식과 실무 기술을 모두 갖춘 전문 인력을 선호하고 있는 미용산업의 의식의 변화는 전국 대학교에 미용 관련 학과가 개설되게 했다. 미용 관련 교육과정은 전공 특성상 이론 지식과 실무 기술을 함께 배워야 하는 어려운 학문이고 그와 동시에 세부적인 전공에 대한 적성이나 진로 고민으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 학교생활, 대인관계 등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안녕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대인관계를 잘 형성·유지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력이 있고 진로 결정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심리적 안녕감은 환경적, 정서적 변화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학생의 정신건강, 행복,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²⁾ K-뷰티의 미래를 국내·외에서 이끌어갈 주역이라는 부분에서 미용 전공

1) 대학알리미, (2023), <https://academyinfo.go.kr/mjrinfo/mjrinfo0450/doInit.do>
검색일(2023.09.17.)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심리 상태는 한 개인만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뷰티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긍정적 심리적 자본은 단순히 개인적 관점에서 벗어나 조직의 성과 향상에도 큰 영향을 준다. Luthans and Youssef(2007)의 초기 연구 이후에도 ‘희망(Hope)’, ‘자기효능감 또는 자신감(Self-Efficacy)’, ‘낙관주의(Optimism)’, ‘회복력(Resilience)’의 4가지의 구성요인이 주요 변인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³⁾ 긍정 심리적 자본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심리학의 밑 바탕으로 사람의 강점, 행실, 인품, 덕행, 잠재력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의 장점과 미덕을 계발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연관성은 개인의 삶과 학습에서의 최대의 행복과 성과를 추구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용산업은 잠재 성장력이 높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것에 비해서 미용 전공 학과 학생들의 중도 포기나 중도 퇴학 비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대학의 학생 지원이나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미용 전공 대학생의 교육 환경, 교육 과정, 교육 만족도 등에 대한 다수의 선행 연구와 미용 교육에 대한 전공 만족도 등의 연구는 활발하게 보고되고 있고 전공 교과과정 개선점에 대한 문제점들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미영(2011) “수간호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일반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 스트레스 및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영림(2022) “코로나 19 상황 속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경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 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와 같이 타 전공에서는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심리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으로 미용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다

2) 박양신. (2021). “대학생 긍정심리자본, 휴먼커뮤니케이션 능력, 스트레스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구조모형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

3) 조미라. (2023). “관광계열 대학생의 긍정 심리자본이 자기주도학습과 학습몰입에 미치는영향 -학습동기의 조절효과”. 경기대학교. p5

양한 변인들을 밝혀 내고,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심리적 자원과 역량들을 향상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용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이 심리적 안녕감에 매개효과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의 목적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미용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그로 인하여 점점 미용을 전공이나 직업으로 선택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전문 인력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그만큼 미용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교의 학과가 많이 개설이 되고 있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이 전공선택, 취업, 대인관계, 학업 등에 의해서 생기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안녕감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미용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이해를 도와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밝히고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이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여, 대인관계, 미용 세부전공 선택, 취업 등으로 다양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학업 흥미도 등을 높여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켜 뷰티 산업 시대에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심리적 자본, 휴먼 커뮤니케이션, 학습 몰입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매개효과와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이 순차적으로 매개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 밝혀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미용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미용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미용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은 학습 몰입에 정의(+)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미용전공 대학생의 휴먼 커뮤니케이션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미용전공 대학생의 학습 몰입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6〉 미용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휴먼 커뮤니케이션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7〉 미용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학습 몰입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 방법, 범위 및 구성

1)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을 매개변수로 하였을 때 그 관계를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심리적 자본, 심리적 안녕감, 휴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학습 몰입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연구 모형을 설계하고 가설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심리적 자본, 심리적 안녕감, 휴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학습 몰입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개념에 관해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이론적 고찰들을 통해 심리적 자본을 독립변수로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을 매개변수로 하는 모형을 도출하였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선행 연구에 사용되었던 측정 문항들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 분석을 위해서 미용 전공 대학생 남, 여 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158부,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96부 실시하였으며 총 254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표 1-1] 측정도구 구성

구분	문항수	척도	문항출처
심리적 자본	24	5점 Likert	조미라(2023)
심리적 안녕감	5		양재원(2021)
휴먼 커뮤니케이션	11		박양신(2021)
학습 몰입	5		조미라(2023)
일반적 특성	6	명목	연구자 구성
총 문항 수	51	-	-

1)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문제, 연구방법, 범위 및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연구 문제의 규명을 위한 배경 이론으로는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선행연구 문헌 분석, 즉 심리적 자본, 심리적 안녕감, 휴먼 커뮤니케이션, 학습 몰입의 정의를 정리하였고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자본과 휴먼 커뮤니케이션, 심리적 자본과 학습 몰입,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심리적 안녕감,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등을 정리하였다.

셋째, 실증 조사를 위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고,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조사 대상 및 측정 도구, 자료 분석 방법 등으로 명시하였다.

넷째, 자료의 연구 결과는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 분석을 하고 가설 검증 결과에 대해 기술을 하였다.

다섯째,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 대한 한계점 기술 등으로 구성 되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심리적 자본

1) 심리적 자본의 개념

Seligman(1998)은 심리적 자본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언급한 학자로 그는 1998년 미국 심리 학회장 취임식에서 이제부터 심리학자는 개인의 약점보다는 강점을, 병리적 현상과 질병보다는 활력과 건강에 더 관심을 두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동안의 심리학자들은 분열증과 우울증 치료에 도움을 주는 연구들이 주된 관심사였고 개인의 삶의 역량을 육성하는 연구에는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심리적 자본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심리적 자본이란 긍정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전통적 자본에 대한 개념을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의 가치라는 개념으로 확대를 한 것이다. 심리적 자본은 인간의 행복과 관련하여 개인의 긍정적 태도를 통하여 심리적인 성향으로 변화와 성장에 열려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심리적 자본은 측정이 가능하고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적용될 수 있고, 기질적(trait like)인 성향이라기보다는 상태적(state like)인 특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개방적이고 더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리될 수 있는 요소이다.⁴⁾ 심리적 자본은 후천적으로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개발하고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선행 연구자들이 선행연구를 통하여 증명을 하였고 선행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심리적 자본에 미치는 요인분석을 파악한 후 심리적 자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심리적 자본이 향상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⁵⁾ Seli gman & Csikszentmihalyi(2000)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본을 삶의 질 향상, 질병예방

4) 송새인, (2021). “심리적 자본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조절효과”.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양동화, (2021). “의대생의 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및 심리자본 단체교육 연구”. 안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을 위한 주관적인 경험, 개인의 긍정적인 특성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Luthans(2002)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본은 성과 향상 및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개인의 긍정 심리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Luthans & Youssef(2007)의 연구에서는 희망, 낙관주의, 회복, 자기효능감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복합적 긍정 심리상태라고 하였다. 심리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꾸준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있다. 김태욱(2018)은 어려운 일도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낙관주의, 목표 달성을 위해 방법을 찾아내는 희망, 어려움에도 계속 노력하는 회복력을 지닌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상태라고 정의하였고, 신선해(2020)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희망,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한 무형적 자본으로 훈련과 학습을 통하여 조직 및 개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심리적 자본이라고 정의하였다. 송새인(2021)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신감과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이며, 역경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복귀시키거나 그것을 초월하는 개인의 복합적인 긍정심리상태라고 정의하였고, 이윤희(2022)는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회복탄력성, 희망이 함께 작용하는 개인의 긍정적 심리 상태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자본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정재은(2022)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탄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주도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본의 정의를 긍정적인 태도를 통하여 개인의 심리상태를 성장시키고 목표 달성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복합적인 심리상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표 2-1] 심리적 자본의 개념

연구자	정의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삶의 질 향상, 질병예방을 위한 주관적인 경험, 개인의 긍정적인 특성
Luthans, 2002	심리적 자본은 성과 향상 및 목표달성에 도움을 주는 개인의 긍정 심리 상태
Luthans & Youssef, 2007	희망, 낙관주의, 회복, 자기효능감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복합적 긍정 심리상태
김태욱, 2018	어려운 일도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낙관주의, 목표달성을 위해 방법을 찾아내는 희망, 어려움에도 계속 노력하는 회복력을 지닌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상태
박별모, 2020	주어진 환경에서 긍정적인 심리를 강점을 활용해 진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여 성과를 향상시켜 자신의 직무 그리고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심리적 자본
신선해, 2020	개인의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무형적 자본으로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개인 및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심리적 자본
송새인, 2021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신감과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 부여이며, 역경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복귀시키거나 그것을 초월하는 개인의 복합적인 긍정심리상태
이유경, 2022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회복탄력성, 희망이 함께 작용하는 개인의 긍정적 심리 상태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자본
정재은, 2022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탄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주도하는 심리적 상태

자료 : 선행 연구를 참고로 연구자 재구성.

2) 심리적 자본의 구성요소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낙관주의	희망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사용하며 성장을 하고자하는 심리	고난과 실패 또는 급격한 변화에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	긍정적 사건의 원인을 일관적이고 영구적인 원인으로 해석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을거라는 믿음과 의지

[그림 2-1] 심리적 자본의 구성요소

심리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기존 심리학의 연구가 이상 심리에 대해 약점 치료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 집단, 개인이 변영할 수 있도록 요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되어 심리학 연구에서 지향해야 할 방법과 길을 제시하고 있다.⁶⁾ 심리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는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기 효능감’, 역경이나 실패 또는 급격한 변화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인 ‘회복 탄력성’, 긍정적인 사건의 원인을 영구적, 내부적, 일관적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 ‘낙관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 또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인 ‘희망’과 같이 네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가)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인지적 자원, 동기부여, 행동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이나 확신을 갖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보다

6) 조미라. (2023). “관광계열 대학생의 긍정 심리자본이 자기주도학습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 학습동기의 조절효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힘든 일을 선택하고, 도전하는 것을 환영하며 일을 성공시키고자 하고,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기도 하며 그뿐만 아니라 원하는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아낌없이 노력하고 투자를 하며 난관에 직면했을 때에는 참고 이겨내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⁷⁾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역경을 직면했을 때 얼마만큼 노력하고 인내를 할지 결정한다. 숙달과 반복되는 성공의 경험, 대리 경험과 모델링, 심리적·생리적 환기, 사회적 설득, 긍정적 피드백 등의 인지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기효능감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다.⁸⁾

나) 회복탄력성

회복 탄력성은 ‘복원력’이라고도 부르며 부정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량을 의미하는 요인이다. 역경, 갈등, 실패, 긍정적 사건 및 상황, 긍정적 수준, 막중한 책임감 등의 상황에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회복 가능한 수용력 및 역량이라고 하고 그뿐만 아니라 보다 향상된 수준으로 높이려는 스스로의 의지로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⁹⁾ 또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을 회복시켜주는 요인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대처하여 자기 자신의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특징이 있다. 탄력성은 심리적 자본의 다른 하위 요인들과 상호작용이 높은 요인으로서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더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반응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¹⁰⁾

7) 박양신, (2021), “대학생 긍정심리자본, 휴면 커뮤니케이션 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구조모형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이유경, (2022),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김태우, (20218), “진정성 리더십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LMX의 질의 매개변수와 긍정심리자본의 조절변수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정재은, (2022), “중장년 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몰입 및 평생학습 지속성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다) 낙관주의

낙관주의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추론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인 귀인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개인의 성공이 안정적이며, 발생 확률이 높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고 인식을 하며, 실패에 대해서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결국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에서 시작하였다.¹¹⁾ 낙관주의는 긍정적인 사건들의 발생을 지배적, 내재적, 항구적인 요인들의 결과로 보고 있다. 낙관주의자들은 목표를 추구하고 동기화 시킬 수 있도록 긍정적인 기대들을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기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집중적인 학습과 개입을 통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¹²⁾

라) 희망

희망이란 자신이 원하고 추구하는 목적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계획한 일들이 모두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개인적인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을 기반으로 자신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개인의 의지와 목적 달성에 대한 긍정적 동기부여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¹³⁾ 희망은 문제 해결 능력, 유연한 사고방식, 문제 대응능력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희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비교적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의 계획이 장애물에 의해 가로막히게 됐을 때 내재적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¹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원동력은

11) 원유봉, (2120). “직무순환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자본의 매개효과와 조직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최요한, (2011). “호텔 종사원의 심리적 자본이 서비스회복, 서비스품질, 고객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영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정진오, (2019). “심리적 자본이 종업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고방식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한 가지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경로로 대안을 구상하는 방식인 ‘경로 사고’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대안을 ‘차선택’ 또는 ‘대책’ 이라고 부른다.¹⁵⁾

14) 김지연.(2013).“변혁적 리더십이 심리적 자본 및 조직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윤효실. (2016). “특 1급 호텔 식음료·조리종사원의 심리적 자본이 열의, 소진, 만족 및 몰입에 미치는 영향:일-가정 갈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제 2 절 심리적 안녕감

1)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

그리스의 철학자 Aristotles는 인간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며 행복의 속성에는 자기만족과 일상에서 오는 즐거움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즉 단순한 쾌락적 행복이 아닌 자신이 살아가는 삶과 덕이 일치했을 때 더 나은 행복감으로 인간답게 잘 살 수 있는 높은 삶의 질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¹⁶⁾ 인간은 자기 자신을 수용할 줄 알며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면서 환경에 적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잠재력이 최대한으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일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며 만족해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건강한 정신이 보여주는 이상적 징조라고 볼 수 있다. 내적으로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행복한 상태를 말하며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전체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정서적으로 느끼는 안녕감의 수준을 의미한다.¹⁷⁾ 또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되돌아보고 종합한 것에 의해서 자신이 내리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가 평가하고 기준에 일치할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¹⁸⁾ 심리학에서 안녕감이란 행복과 유사한 개념으로 삶에 대한 전반적인 정서적, 인지적 평가의 주관적 안녕감과 삶 속 긍정적인 기능을 초래하는 잠재력인 심리적 안녕감으로 나뉘어진다.¹⁹⁾ 주관적 안녕감이란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내리는 내적인 평가로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인

16) 김태욱. (20218). “진정성 리더십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LMX의 질의 매개변수와 긍정심리자본의 조절변수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7) 조수정. (2023). “영유아교사의 심리적안녕감과 직무스트레스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주현정. (2018).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기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대인관계유능성의 매개효과”.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정주희. (2020). “대학생의 성인애착, 자기자비, 탈중심화, 반추,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서를 주로 경험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드물게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심리적 안녕감은 행복론적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구현하고 쾌락적 삶이 아닌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삶이다. 따라서 행복한 삶이란 삶의 질이 높은 것이 아닌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얼마나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²¹⁾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정의를 보면 김상겸(2008)은 심리적 안녕감이란 인생 전반 또는 생활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서의 지속 상태로 보며, 환경 내·외 차원에 개인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갖는 주관적이고 총체적인 평가라고 정의하였고, 양은호(2012)는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정도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잘 기능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권혜진(2020)은 주관적 삶의 만족이나 긍정적 정서의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삶의 질을 측정함으로써 주관적인 안녕감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정주희(2020)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줄 알고 독립적이며 행동을 조절할 수 있어 주변에 잘 적응하고 성숙된 삶에 대한 목적과 동기로 행복한 자기실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조수정(2023)은 개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면의 모습에서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건강하게 질 높은 삶을 추구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며, 또한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인생 전반에서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아와 정서를 가지고 자신을 자신이 정한 기준에 맞춰나가며 행복감을 느끼고 사회 구성원으로써 잘 기능을 하며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20) 권혜진, (2020). “가족건강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정주희, (2020). “대학생의 성인애착, 자기자비, 탈중심화, 반추,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표 2-2]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

연구자	정의
김상겸, 2008	인생전반 또는 생활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서의 지속상태로 보며, 환경 내·외 차원에 개인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갖는 주관적이고 총체적인 평가
양은호, 2012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정도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개인이 잘 기능하는 정도
장여진, 2014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하여 개인을 둘러싼 환경,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 건강한 자아상과의 조화와 균형
주현정, 2018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사회에 더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정서와 감성
윤소현, 2019	개인이 평가하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심리적 건강상태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총체
정주희, 2020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줄 알고 독립적이며 행동을 조절할 수 있어 주변에 잘 적응하고 성숙된 삶에 대한 목적과 동기로 행복한 자기실현적 삶을 사는 것
권혜진, 2020	주관적 삶의 만족이나 긍정적 정서의 측면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삶의 질을 측정함으로써 주관적인 안녕감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
조수정, 2023	개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면의 모습에서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건강하게 질 높은 삶을 추구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며, 또한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상태

자료 : 선행 연구를 참고로 연구자 재구성.

제 3 절 휴먼 커뮤니케이션

1)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는 라틴어로 “공유”, “공통” 이라는 뜻을 가진 “Communis”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번역하면 “의사소통”이라고 하며 하나의 생물 개체가 다른 개체와 감정,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하는 과정이고 상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과정이다. 나아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 및 과정이자 대인관계 유지 또는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²²⁾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이 되고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약속으로 만들어진 기호이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표현과 의미의 전달’이 언어의 본질이고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에는 사람과 사람 관계의 언어가 있다.²³⁾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구두와 쓰기 두 가지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그중 구두 커뮤니케이션이 약 75%로 이루어져 있어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식적,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인터뷰나 회의 같은 분류이고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타인과의 대화, 상담, 전화 통화 같은 것들이 있다.²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심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긍정적 행동과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고 상호 접촉을 통하여 서로간에 필요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친근감이 쌓이게 하며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촉진시킬 수 있다.²⁵⁾

22) 이준철, (2020). “상사 대인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조동근, (2022). “호텔 종사원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직무열의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최송문, (2020). “호텔이용객이 지각한 언어적·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요인이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 휴리스틱 체계적모형을 적용하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적 표현으로 하지 않더라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태도를 전달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자신의 성격을 나타내고, 반응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²⁶⁾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자신의 생각, 태도, 감정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체적 동작, 얼굴의 표정, 손짓, 눈짓, 자세, 몸의 접촉, 분위기, 웃음 등을 사용한다. Mehrabian, A.&Russell, J. A(1974)는 커뮤니케이션 전달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음성 38%, 시각 55%, 내용 7%에 불과하므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93%나 차지한다고 하였고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65% 이상이 비언어적 형태이며, 35%만 언어적 형태로 전달된다고 하였다.²⁷⁾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연구자들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람이 성격이나 태도를 전달하고 감정을 표현할 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보다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도구라고 하였다.²⁸⁾

철학자들은 휴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말하기 기술’과 ‘수사법’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우아하고 훈련받은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휴먼 커뮤니케이션은 대인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상호 작용의 본질을 결정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 확립 시켜주는 요소이다. 휴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면 대체로 대인관계의 고립, 정서적 불안정, 스트레스, 효과적인 대처 부족, 학업능력 저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휴먼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타인을 포함한 주변 상황을 통제, 적응, 협력하며 상호작용적 목적을 달성하고 타인과 개방적으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경청하며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²⁹⁾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연구자

25) 이해란. (2021). “미용학원강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학습자들의 재수강의도에 미치는 영향 : 학습몰입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권정현. (2021). “카지노 산업에서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관계감정과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관계감정을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 백정원. (2016). “미용서비스 제공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고객의 감정반응과 브랜드 이미지 및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 이해란. (2021). “미용학원강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학습자들의 재수강의도에 미치는 영향 : 학습몰입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 박양신. (2021). “대학생 긍정심리자본, 휴먼 커뮤니케이션 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구조모형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들의 정의를 보자면 백혜진(2015)은 면대 면 상황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인간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언어적, 비언어적 스킬이라고 정의하였고, 김은빈(2017)은 최소한 2명 이상의 개별적인 주체가 직접 혹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대화를 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정의 하였다. 강미선, 임선영, 차선경(2019)은 대인간의 의사소통을 비롯하여 정서 교류, 정보 교환, 갈등 해결, 조직 관리와 리더십, 계약과 협상 등 방위적인 영역에서 발휘되는 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 박양신(2021)은 타인을 포함한 주변 상황에 적응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적절하게 협력하고 적응함으로써 상호작용적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조동근(2022)은 인지적, 대인적, 행동적이고 관계적이며 성향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나 환경, 기업 등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소통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휴먼 커뮤니케이션이란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표 2-3]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연구자	정의
양정우, 2012	2명 이상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느끼고 생기는 생각과 영감을 자신만의 언행으로 표현하는 것
안정진, 2014	주어진 상황속에서 불안감을 극복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타인과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기술
백혜진, 2015	면대면 상황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인간의 적절 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언어적, 비언어적 스킬
김은빈, 2017	최소한 2명 이상의 개별적인 주체가 직접 혹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대화를 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강미선, 임선영, 차선경, 2019	대인간의 의사소통을 비롯하여 정서 교류, 정보 교환, 갈등 해결, 조직 관리와 리더십, 계약과 협상 등 방위적인 영역에서 발휘되는 역량
박양신, 2021	타인을 포함한 주변 상황에 적응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적절하게 협력하고 적응함으로써 상호작용적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
조동근, 2022	인지적, 대인적, 행동적이고 관계적이며 성향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나 환경, 기업 등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소통 능력

자료 : 선행 연구를 참고로 연구자 재구성.

제 4 절 학습 몰입

1) 학습 몰입의 개념

몰입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에 미국의 학자 Csikszentmihalyi가 처음으로 제안을 하였다. 초기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레저, 교육, 직장,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때 의식이 좁고 집중력이 완전해지며 활동에 대한 피드백만 있으며 활동과 무관한 정보와 지각을 모두 자연스럽게 걸러낸다는 특수한 심리상태가 나타나는 점에 주목을 하였다. 이러한 특수한 심리상태를 몰입이라고 한다.³⁰⁾ 즉, 몰입이란 어떠한 활동에서 깊이 집중된 상태로 그 활동에 빠져들어 최적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으로 주변 상황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흡수되어 활동 자체에서 받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시간 감각을 잃어버린 채로 자신의 행동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몰아일체 상태를 의미한다.³¹⁾ 몰입은 외적인 보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계속 진행될 수 있고, 그 경험 자체가 내재적 동기화로 이루어져 어려운 과정이라도 해결하고 극복하게 된다. 내재적 동기는 자신의 흥미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심리적 에너지로 어떠한 활동에서 자기 목적적인 보상을 이끌어낸다. 자기 목적적이란 자기가 하고자 하는 활동이 중요하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굳게 믿는 심리적인 힘을 의미하며, 원하는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보상이 되기 때문에 물질적인 수혜나 쾌감, 명예, 권력, 재미와 같은 보상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³²⁾ 학습 몰입은 몰입 개념을 학습에 적용한 것으로, 학습자가 수업에 임하거나 과제를 수행할 때 완전히 집중을 하며 최적의 경험을 하게 되는 상태이다. 학습 몰입은 학습자를 학습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학습시간을 단축시키고, 학습 만족과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학습을 하면서 흥미, 열정, 호기심과 같은 긍정적 감성을 경험하게 되고,

30) 장진범. (2023).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분석”. 동방문화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1) 차유미. (2017). “전문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율성지지,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습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2) 김기홍. (2019).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핵심역량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대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어려운 과제에 도전을 하며, 학습 성취를 위해서 더욱 강한 집중력과 많은 노력을 보인다. 반면, 몰입하지 못하는 학습자는 학습활동에 수동적이고, 어려운 과제는 쉽게 포기하며, 학습활동에 지루함을 느껴 중도탈락을 하거나 학습 실패에 이르게 된다.³³⁾ 학습 몰입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송경화(2014)는 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동기와 관련이 있으며 학습과정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와 집중함으로써 흥미, 즐거움 등 최적의 상태를 경험하고 학습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였고, 박지윤(2017)은 특정 수업에 대한 학습 활동이나 과제를 수행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몰두하며 통제감을 느끼는 경험에 대한 인식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연정(2018)은 학업 상황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몰입 상태로 시간과 감각을 의식하지 못한 채 즐거움, 만족감, 자기 충족감 등을 느끼는 최적의 심리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박미재(2018)는 학습활동에 깊이 집중하여 개인의 유능감과 행복감을 함께 느끼는 즐거운 심리상태라고 정의하였다. 김규영(2021)은 학습 목표를 위해 학습자가 쏟는 정신적 에너지와 노력의 질이며, 학업 성취 차원에서 최선의 학습 경험과 역량 향상을 통해 개인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요인이라고 정의하였다. 학습 몰입을 정리하자면 학습 목표를 위해서 학습자가 쏟는 정신적 에너지이자 노력의 질이며, 최선의 학습경험과 역량 향상을 통해서 개인이 성정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요인이다.³⁴⁾

연구자는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 몰입을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높은 집중도와 흥미를 보이고 만족감, 즐거움, 자신감, 성취감을 얻어 학습 결과와 개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33) 박지윤. (2017).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학습만족 예측 : 긍정심리자본과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4) 김규영. (2021). “평생학습관 중장년 성인학습자 특성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 2-4] 학습 몰입의 개념

연구자	정의
송경화, 2014	학습에 참여한 학습자의 동기와 관련이 있어 학습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집중으로 흥미, 즐거움 등 최적의 상태를 경험하여 학습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태
박지윤, 2017	특정 수업에 대한 학습 활동이나 과제를 수행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몰두하며 통제감을 느끼는 경험에 대한 인식
차유미, 2017	학습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몰두하여 학습에 즐거움과 흥미를 느끼고 집중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얻게 되는 최적의 학습경험
김연정, 2018	학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몰입 상태로 감각과 시간을 의식하지 못한 채 자기충족감, 즐거움, 만족감 등을 느끼는 최적의 심리상태
박미재, 2018	학습활동에 깊이 집중하여 개인의 유능감과 행복감을 함께 느끼는 즐거운 심리상태
김기홍, 2019	학습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의적, 인지적 경험이 연속적이고 상호의존적으로 나타나는 학습자의 내적인 심리 상태
김규영, 2021	학습의 목표를 위해서 쏟는 정신적 에너지와 노력의 질, 학업 성취 자원에서 최선의 학습경험 그리고 역량 향상을 통하여 개인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요인
장진범, 2023	특정 활동에 집중하면 주변 의식을 못하고 시간 왜곡이 되어 완전 흡수되는 최적의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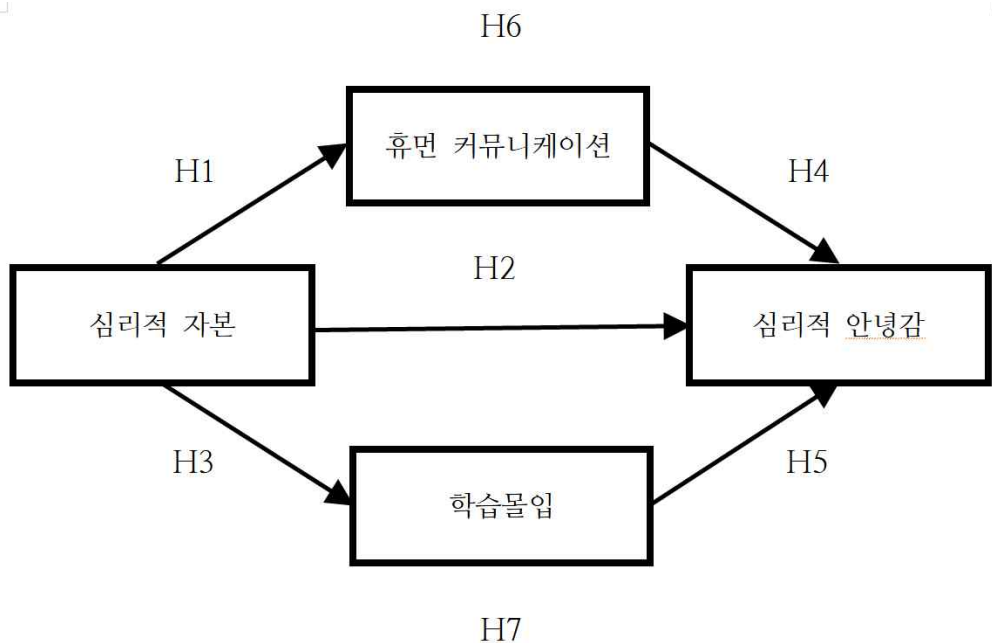
자료 : 선행 연구를 참고로 연구자 재구성.

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을 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모형 도식화는 [그림 3-1]과 같다.

연구 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심리적 자본을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영향을 미치는 관계인 매개변수로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 가설

본 연구는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증연구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미용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자기효능감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희망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낙관주의는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4. 탄력성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미용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희망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낙관주의는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4. 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미용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은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 자기효능감은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 희망은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3. 낙관주의는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4. 탄력성은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미용전공 대학생의 휴먼 커뮤니케이션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미용전공 대학생의 학습 몰입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미용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휴먼 커뮤니케이션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7. 미용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학습 몰입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돕기 위해 연구에 쓰이고 있는 주요한 변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해둔다.

1) 심리적 자본

김나연(2014)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 4가지의 개인의 심리적 특성 요인들의 통합체라고 정의하였고, 어수관(2019)은 자기효능감, 복원력, 희망, 낙관주의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긍정적 심리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본의 정의를 긍정적인 태도를 통하여 개인의 심리상태를 성장시키고 목표 달성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복합적인 심리상태라고 정의하였다.

2) 심리적 안녕감

윤소현(2019)은 개인이 생각하고 평가하는 주관적인 심리적 건강 상태로 인간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총체라고 정의하였고, 임상혁(2017)은 자존감, 사회성, 사회적 참여, 정신적 균형, 자신과 사건에 대한 통제와 행복감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인생 전반에서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아와 정서를 가지고 자신을 자신이 정한 기준에 맞춰나가며 행복감을 느끼고 사회구성원으로써 잘 기능을 하며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3) 휴먼 커뮤니케이션

박양신(2021)은 타인을 포함한 주변 상황에 적응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적절하게 협력하고

적응함으로써 상호작용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이선민(2017)은 처해진 상황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알고 있으면서 적절하게 그에 따른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휴먼 커뮤니케이션이란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4) 학습 몰입

박미재(2018)는 학습활동에 깊이 집중하여 개인이 유능감과 행복감을 함께 느끼는 즐거운 심리 상태라고 정의하였고, 요우가(2021)는 학습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심화되는 것으로, 학습자가 목표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학습의 결과를 위해 학습자가 기울이는 노력의 질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 몰입이란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높은 집중도와 흥미를 보이며 만족감, 즐거움, 몰아일체를 느끼는 학습경험이라고 정의하였다.

제 4 절 조사 대상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미용 전공 대학생들 254명을 대상으로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158부,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96부 실시하여 총 254부의 설문지를 조사하였으며, 설문지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총 51개의 문항들을 명목 척도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먼저 심리적 자본은 조미라(2023)의 연구에서 검증된 24개의 문항으로, 심리적 안녕감은 양재원(2021)의 연구에서 검증된 5개의 문항으로, 휴먼 커뮤니케이션은 박양신(2021)의 연구에서 검증된 11개의 문항으로, 학습 몰입은 조미라(2023)의 연구에서 검증된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연구자가 개발한 6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선다형으로 측정하였다.

[표 3-1] 측정도구 구성

구분	문항수	척도	문항출처
심리적 자본	24	5점 Likert	조미라(2023)
심리적 안녕감	5		양재원(2021)
휴먼 커뮤니케이션	11		박양신(2021)
학습 몰입	5		조미라(2023)
일반적 특성	6	명목	연구자 구성
총 문항 수	51	-	-

제 5 절 조사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 자료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데이터 코딩(Data-Coding) 과정을 거친 후 SPSS Ver. 26.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였다.

첫째, 표본들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요인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다변량 통계기법 중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타당성 지표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은 수많은 변수들을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묶어줌으로써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단순화시키는 분석방법이다(송지준, 2013). 특히, 요인의 수를 줄이고 정보손실 최소화를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방식 사용하였다. 또한 요인회전은 요인들 간의 상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요인의 축 사이의 각도를 90도로 유지하는 직각회전방식인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정은주, 2015).

요인 분석을 한 결과 요인별로 분류된 측정 항목들에 대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설문 응답자들의 응답을 통해서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고,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를 통해서 측정한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에 대해 조사하였다.

셋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변수들 간의 관련성의 정도를 측정하여 얼마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알

아보는 분석 기법으로 즉 가설검정에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성과 변화의 방향과 정도를 측정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정은주, 2015),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부호에 관계없이 상관계수의 절댓값 크기가 변수들 간의 연관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이훈영, 2013).

넷째,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각 변수들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독립 표본 t 검정 테스트(t-test)와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이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실시를 하였으며, 또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대적인 크기에 대해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미용 전공 대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4-1]과 같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218명(85.8%), 남성 36명(14.2%)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 유무는 미혼 225명(88.6%), 기혼 29명(11.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 225명(88.6%), 30대 8명(3.1%), 40대 11명(4.3%), 50대 이상 10명(3.9%) 순으로 나타났고,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이상이 143명(56.3%), 2/3년제 대학교 재학 및 졸업 111명(43.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학생 152명(59.8%), 전문직 32명(12.6%), 기타 31명(12.2%), 서비스업 22명(8.7%), 회사원 17명(6.7%) 순으로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월 평균 소득으로는 100만원 미만 137명(53.9%),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85명(33.5%), 300만원 이상 32명(1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성별	여성	218	85.8
	남성	36	14.2
	계	254	100.0
결혼 여부	미혼	225	88.6
	기혼	29	11.4
	계	254	100.0
연령	20대	225	88.6
	30대	8	3.1
	40대	11	4.3
	50대 이상	10	3.9
	계	254	100.0
최종학력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111	43.7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107	42.1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36	14.2
	계	254	100.0
직업	학생	152	59.8
	회사원	17	6.7
	서비스업	22	8.7
	전문직	32	12.6
	기타	31	12.2
	계	254	100.0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37	53.9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85	33.5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9	7.5
	500만원 이상	13	5.1
	계	254	100.0

제 2 절 기술통계

개별 변수들의 측정항목들의 정규성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왜도와 첨도를 활용한 일변량 정규성으로 검정이 가능하며, 왜도 절댓값이 3 이상, 첨도 절댓값 8 이상이 없으면 정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신건권, 2013). 심리적 자본이 정규성을 갖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표 4-2]와 같이 왜도와 첨도를 측정하였다. 검증결과 심리적 자본은 $-1.024 \sim -.181$, 첨도가 $-.831 \sim 1.041$ 의 값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에서 활용된 심리적 자본의 분석 자료는 정규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4-2] 심리적 자본의 기술통계분석

문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심리적 자본1	3.51	1.073	-.292	-.794
심리적 자본2	3.76	.905	-.459	-.059
심리적 자본3	3.61	.949	-.387	-.289
심리적 자본4	3.91	.819	-.576	.230
심리적 자본5	4.06	.940	-1.024	.688
심리적 자본6	3.47	1.012	-.189	-.831
심리적 자본7	3.92	.792	-.595	.689
심리적 자본8	4.23	.757	-.855	.573
심리적 자본9	4.27	.684	-.638	.185
심리적 자본10	3.97	.881	-.643	.120
심리적 자본11	3.86	.827	-.588	.223
심리적 자본12	3.74	.908	-.323	-.654
심리적 자본13	3.85	.969	-.781	.161
심리적 자본14	3.96	.883	-.789	.750
심리적 자본15	4.01	.902	-.812	.331
심리적 자본16	3.96	.929	-.732	.303
심리적 자본17	3.98	.822	-.494	-.274
심리적 자본18	3.73	.969	-.490	-.249
심리적 자본19	3.61	1.021	-.547	-.281
심리적 자본20	3.99	.848	-.808	.891
심리적 자본21	3.42	1.017	-.181	-.453
심리적 자본22	3.65	.939	-.363	-.098
심리적 자본23	4.01	.782	-.733	1.041
심리적 자본24	3.46	1.031	-.318	-.412

휴먼 커뮤니케이션이 정규성을 갖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표 4-3]와 같이 첨도와 왜도를 측정하였다. 검증결과 왜도는 $-1.202 \sim -.100$, 첨도가 $-.848 \sim 1.788$ 의 값을 보여 본 연구에서 활용된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분석 자료는 정규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4-3]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통계분석

문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휴먼 커뮤니케이션1	3.80	.874	-.328	-.236
휴먼 커뮤니케이션2	4.02	.906	-1.202	1.788
휴먼 커뮤니케이션3	3.96	.753	-.270	-.397
휴먼 커뮤니케이션4	3.64	.961	-.501	-.147
휴먼 커뮤니케이션5	3.46	1.057	-.320	-.565
휴먼 커뮤니케이션6	3.26	1.084	-.100	-.848
휴먼 커뮤니케이션7	3.82	.898	-.310	-.556
휴먼 커뮤니케이션8	3.67	.879	-.270	-.261
휴먼 커뮤니케이션9	3.93	.822	-.485	.215
휴먼 커뮤니케이션10	4.00	.897	-.825	.699
휴먼 커뮤니케이션11	4.06	.866	-.829	.544

학습 몰입이 정규성을 갖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표 4-4]와 같이 첨도와 왜도를 측정하였다. 검증결과 왜도는 $-.547 \sim .157$, 첨도가 $-.614 \sim -.113$ 의 값을 보여 본 연구에서 활용된 학습 몰입의 분석 자료는 정규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4-4] 학습 몰입의 기술통계분석

문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학습 몰입1	3.27	.963	-.283	-.273
학습 몰입2	3.41	.952	-.303	-.113
학습 몰입3	3.75	1.069	-.547	-.490
학습 몰입4	3.10	1.016	.157	-.614
학습 몰입5	3.55	1.079	-.513	-.317

심리적 안녕감이 정규성을 갖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표 4-5]와 같이 왜도와 첨도를 측정하였다. 검증결과 왜도는 $-.443 \sim -.112$, 첨도가 $-.386 \sim .068$ 의 값을 보여 본 연구에서 활용된 심리적 안녕감의 분석 자료는 정규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4-5] 심리적 안녕감의 기술통계분석

문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심리적 안녕감1	3.66	.915	-.323	-.256
심리적 안녕감2	3.69	.901	-.309	-.338
심리적 안녕감3	3.41	.918	-.112	-.340
심리적 안녕감4	3.59	.887	-.443	.068
심리적 안녕감5	3.53	.992	-.393	-.386

제 3 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1) 심리적 자본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심리적 자본의 전체 분산 설명력은 72.542%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KMO 표준 적합도는 .904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 $\chi^2=6851.721$, $p<.001$ 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요인 값이 모두 .561 이상으로 보이므로 타당성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을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탄력성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가 자기효능감 .951, 희망 .889, 낙관주의 .928, 탄력성 .901로 나타나 모든 문항에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심리적 자본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자기 효능감	희망	낙관 주의	탄력성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781			
긍정의 마인드로 스스로에게 용기를 준다.	.745			
심리적 동요를 줄이기 위해 미래를 꿈꾼다.	.743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	.735			
실패의 느낌은 짧게 갖는 것이 좋다.	.734			
학습 능력이 떨어지면 더 많은 학습을 한다.	.730			
과거에서 벗어나 다가올 미래에서 희망을 찾으려 한다.		.742		
학습 능력은 꾸준한 노력으로 성장한다고 굳게 믿는다.		.738		
지속적 학습 의지는 더욱 좋은 결과를 예상하게 한다.		.700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691		
학습 능력은 자신감 있는 수업 참여를 통해 나타난다.		.667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다.		.661		
스트레스는 오늘 해결하고 내일은 맑은 정신을 가지려고 한다.			.726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뜬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718	
언제든 어려움이 올 수 있어 준비를 하여야 한다.			.688	
학습은 긴 안목을 가지고 깊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685	
잘 될 것이라고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려 한다.			.673	
뒤처지는 누군가가 보이면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다.			.643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701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빨리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647
고객을 끌어 올 수 있는 자심감, 나만의 비법이 있다.				.634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599
지금 실패하더라도 다음에 적극적으로 보완하면 된다.				.580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를 다진다.				.561
합계	2.594	2.418	2.205	2.148
% 분산	21.628	20.154	18.384	17.911
% 누적	21.628	41.782	60.168	78.080
Cronbach's α	.951	.889	.928	.901

2)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휴먼 커뮤니케이션은 척도 순화 과정을 통하여 2개 문항이 제거되었다. 최종적으로 분석한 결과,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전체 분산 설명력은 76.024%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KMO 표준 적합도는 .954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chi^2=13101.378$, $p<.001$ 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요인 값이 모두 .573 이상으로 보이므로 타당성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하위 요인을 개방적 의사소통, 주도적 의사소통, 타인 관점 이해 등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가 개방적 의사소통 .939, 주도적 의사소통 .928, 타인 관점 이해 .930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에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개방적 의사소통	주도적 의사소통	타인 관점 이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잘 듣는다.	.785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고민을 잘 털어 놓는다.	.731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귀담 아 듣는다.	.725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이야 기한다.		.780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 뿐만이 아닌 표정이나 몸짓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769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받으면 분명하고 조리 있게 내 의견을 말한다.		.633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있음을 보이기위해 말이나 몸짓으로 드러내 보인다.			.703
상대가 말할 때 끝까지 듣는 편이다.			.596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 하면서 대화한다.			.573
합계	4.967	4.675	4.042
% 분산	27.596	25.974	22.454
% 누적	27.596	53.570	76.024
Cronbach's α	.939	.928	.930

3) 학습 몰입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학습 몰입의 전체 분산 설명력은 66.907%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KMO 표준 적합도는 .920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 $\chi^2=6369.419$, $p<.001$ 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요인값이 모두 .773 이상으로 보이므로 타당성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가 .936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학습 몰입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요인 적재값
나는 학습 할 때 몰입되는 시간이 빠르다.	.826
학습을 할 때 완전히 집중을 한다.	.822
학습에 집중할 때 시간이 흘러가는는 속도가 평소보다 빠르게 느껴진다	.809
나는 독특한 학습 몰입 방법이 있다.	.783
강의를 듣기 전 해당하는 학습 부분을 선행하면 강의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	.773
합계	6.021
% 분산	66.907
% 누적	66.907
Cronbach's α	.936

4) 심리적 안녕감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심리적 안녕감의 전체 분산 설명력은 61.823%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KMO 표준 적합도는 .882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chi^2=3077.195$, $p<.001$ 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요인 값이 모두 .741 이상으로 보이므로 타당성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가 .895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심리적 안녕감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요인 적재값
내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느낀다.	.791
내가 해야 할 일(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고 느낀다.	.787
내 자신을 주변인들과 비교했을 때, 내 자신이 흐뭇하게 느껴진다.	.780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느낀다.	.765
내 경험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741
합계	4.328
% 분산	61.823
% 누적	61.823
Cronbach's α	.895

제 4 절 상관관계 분석

본 논문에서는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과 휴먼 커뮤니케이션, 학습 몰입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심리적 자본의 자기효능감은 동일 변수의 희망($r=.662, p<.001$), 낙관주의($r=.822, p<.001$), 탄력성($r=.665,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개방적 의사소통($r=.668, p<.001$)과 주도적 의사소통($r=.748, p<.001$) 그리고 타인 관점 이해($r=.603,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학습 몰입($r=.601, p<.001$)과 심리적 안녕감($r=.689, p<.001$)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심리적 자본의 희망은 동일 변수의 낙관주의($r=.709, p<.001$), 탄력성($r=.756,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개방적 의사소통($r=.714, p<.001$)과 주도적 의사소통($r=.618, p<.001$) 그리고 타인 관점 이해($r=.599,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학습 몰입($r=.674, p<.001$)과 심리적 안녕감($r=.569, p<.001$)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심리적 자본의 낙관주의는 동일 변수의 탄력성($r=.698,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개방적 의사소통($r=.589, p<.001$)과 주도적 의사소통($r=.684, p<.001$) 그리고 타인 관점 이해($r=.545,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학습 몰입($r=.588, p<.001$)과 심리적 안녕감($r=.546, p<.001$)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심리적 자본의 탄력성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개방적 의사소통($r=.587, p<.001$)과 주도적 의사소통($r=.609, p<.001$) 그리고 타인 관점 이해($r=.695,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학습 몰입($r=.679, p<.001$)과 심리적 안녕감($r=.568, p<.001$)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동일 변수의 주도적 의사소통($r=.615, p<.001$)과 타인 관점 이해($r=.698,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학습 몰입($r=.536, p<.001$)과 심리적 안녕감($r=.594, p<.001$)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주도적 의사소통은 동일 변수의 타인 관점 이해($r=.619$,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학습 몰입($r=.582$, $p<.001$)과 심리적 안녕감($r=.698$, $p<.001$)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타인 관점 이해는 학습 몰입($r=.536$, $p<.001$)과 심리적 안녕감($r=.588$, $p<.001$)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끝으로 학습 몰입은 심리적 안녕감($r=.768$,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표 4-10] 심리적 자본, 휴먼 커뮤니케이션, 학습 몰입,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분석

		심리적 자본			휴먼 커뮤니케이션			학습 몰입	심리적 안녕감	
		1	2	3	4	5	6	7		
심리적 자본	1	1								
	2	.662***	1							
	3	.822***	.709***	1						
	4	.665***	.756***	.698***	1					
휴먼 커뮤니케이션	5	.668***	.714***	.589***	.587***	1				
	6	.748***	.618***	.684***	.609***	.615***	1			
	7	.603***	.599***	.545***	.695***	.698***	.619***	1		
학습 몰입		.601***	.674***	.588***	.679***	.536***	.582***	.536***	1	
심리적 안녕감		.689***	.569***	.546***	.568***	.594***	.698***	.588***	.768***	1
평균		3.30	3.21	3.25	3.62	3.79	3.66	3.70	3.47	3.53
표준편차		.858	.824	.831	.850	.753	.741	.779	.776	.705

***: $p<.001$ 1: 자기효능감, 2: 희망, 3: 낙관주의, 4: 탄력성, 5: 개방적 의사소통, 6: 주도적 의사소통, 7: 타인 관점 이해

제 5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분석

인구통계학적인 특성들에 따라서 심리적 자본과 휴먼 커뮤니케이션, 학습 몰입,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t-test)와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가) 성별

성별에 따른 각 변수들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검정한 결과는 [표 4-11]와 같다. 검정 결과 성별에 따라서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하위 요인인 개방적 의사소통과 타인 관점 이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경청 능력인 개방적 의사소통($t=2.158$, $p<.05$)과 공감능력인 타인 관점 이해($t=1.997$, $p<.05$)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성별에 따른 측정 변수들의 차이

			N	M	S.D	<i>t</i>	<i>p</i>
심리적 자본	자기 효능감	여성	218	3.27	.839	-.118	.904
		남성	36	3.28	.865		
	희망	여성	218	3.21	.868	1.514	.132
		남성	36	3.08	.815		
	낙관주의	여성	218	3.14	.757	.045	.964
		남성	36	3.16	.855		
	탄력성	여성	218	3.58	.802	.838	.403
		남성	36	3.52	.864		
휴먼 커뮤니 케이션	개방적 의사소통	여성	218	3.82	.697	2.158*	.032
		남성	36	3.67	.764		
	주도적 의사소통	여성	218	3.67	.693	1.818	.076
		남성	36	3.54	.753		
	타인 관점 이해	여성	218	3.72	.733	1.997*	.042
		남성	36	3.58	.788		
학습 몰입	여성	218	3.38	.788	1.882	.061	
	남성	36	3.25	.768			
심리적 안녕감	여성	218	3.51	.676	1.529	.133	
	남성	36	3.42	.709			

*: $p < .05$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나) 결혼여부

결혼 여부에 따른 각 변수들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검정한 결과는 [표 4-12]와 같다. 검정 결과 결혼 여부에 따라서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희망과 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심리적 안녕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나 방법의 탐색 능력인 심리적 자본의 희망

($t=5.323$, $p<.01$)과 실패나 역경 등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인 탄력성($t=7.213$, $p<.01$)은 미혼이 기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이 느끼는 행복이나 만족 정도인 심리적 안녕감은 기혼이 미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1.358$, $p<.01$).

[표 4-12] 결혼여부에 따른 측정 변수들의 차이

			N	M	S.D	<i>t</i>	<i>p</i>
심리적 자본	자기 효능감	미혼	225	3.31	.865	.685	.575
		기혼	29	3.24	.911		
	희망	미혼	225	3.45	.837	5.323**	.001
		기혼	29	3.21	.768		
	낙관주의	미혼	225	3.18	.834	1.561	.205
		기혼	29	3.02	.822		
	탄력성	미혼	225	2.83	.822	7.213**	.001
		기혼	29	3.23	.688		
휴먼 커뮤니 케이션	개방적 의사소통	미혼	225	3.21	.516	.987	.475
		기혼	29	3.20	.887		
	주도적 의사소통	미혼	225	3.01	.890	1.555	.225
		기혼	29	3.06	.798		
	타인 관점 이해	미혼	225	3.53	.888	1.375	.204
		기혼	29	3.69	.901		
학습 몰입		미혼	225	3.98	.874	1.787	.358
		기혼	29	4.04	.876		
심리적 안녕감		미혼	225	3.21	.786	1.358**	.001
		기혼	29	3.98	.788		

**: $p<.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다) 연령

연령에 따라 심리적 자본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검정한 결과는 [표 4-13]와 같다. 미용 전공 대학생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개인 능력인 자기효능감은 50대 이상 그룹이 20대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F=13.319$, $p<.001$),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나 방법의 탐색 능력인 희망은 40대 그룹과 50대 이상 그룹이 20대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12.252$, $p<.001$). 또한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인 낙관주의는 50대 이상 그룹이 20대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F=10.735$, $p<.001$), 실패나 역경 등의 급격한 변화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인 탄력성은 40대 그룹과 50대 이상 그룹이 20대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15.844$, $p<.001$).

[표 4-13] 연령에 따른 심리적 자본의 차이의 차이

		N	M	S.D	<i>F</i>	<i>p</i>	
심리적 자본	자기 효능감	20대	225	3.33a	.910	13.319***	.000
		30대	8	3.63ab	.822		
		40대	11	3.69ab	.631		
		50대 이상	10	3.98b	.901		
	희망	20대	225	3.53a	.758	12.252***	.000
		30대	8	3.78ab	.742		
		40대	11	3.90b	.705		
		50대 이상	10	3.93b	.548		
	낙관주의	20대	225	3.42a	.746	10.735***	.000
		30대	8	3.64ab	.722		
		40대	11	3.71ab	.688		
		50대 이상	10	3.92b	.801		
	탄력성	20대	225	3.41a	.795	15.844***	.000
		30대	8	3.61ab	.718		
		40대	11	3.92b	.698		
		50대 이상	10	3.88b	.888		

***: $p < .0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Duncan.: a<b

연령에 따른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검정한 결과는 [표 4-14]와 같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경청 능력인 개방적 의사소통은 50대 이상 그룹이 20대, 30대, 40대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F=5.928$, $p<.01$),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능력인 주도적 의사소통은 50대 이상 그룹이 20대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2.913$, $p<.05$). 또한 공

감 능력인 타인 관점 이해도 역시 50대 이상 그룹이 20대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3.258$, $p<.05$).

[표 4-14] 연령에 따른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N	M	S.D	F	p
휴먼 커뮤니 케이션	개방적 의사소통	20대	225	3.19a	5.928**	.001
		30대	8	3.34a		
		40대	11	3.37a		
		50대 이상	10	3.87b		
	주도적 의사소통	20대	225	3.04a	2.913*	.039
		30대	8	3.17ab		
		40대	11	3.18ab		
		50대 이상	10	3.40b		
	타인 관점 이해	20대	225	3.07a	3.258*	.029
		30대	8	3.18ab		
		40대	11	3.17ab		
		50대 이상	10	3.53b		

*: $p<.05$, **: $p<.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Duncan.: a<b

연령에 따른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검정한 결과는 [표 4-15]와 같다. 학습에 대한 주의력 및 집중력인 학습 몰입은 50대 이상 그룹이 20대, 30대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F=8.948$, $p<.001$), 개인이 느끼는 행복이나 만족 정도인 심리적 안녕감은 50대 이상 그룹이 20대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15.868$, $p<.001$).

[표 4-15] 연령에 따른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N	M	S.D	F	p
학습 몰입	20대	225	3.13a	.792	8.948***	.000
	30대	8	3.28a	.734		
	40대	11	3.43ab	.722		
	50대 이상	10	3.70b	.869		
심리적 안녕감	20대	225	3.26a	.731	15.868***	.000
	30대	8	3.45ab	.615		
	40대	11	3.65bc	.646		
	50대 이상	10	3.84c	.848		

***: $p < .0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Duncan.: a < b

라) 최종학력

최종학력에 따른 심리적 자본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검정한 결과는 [표 4-16]와 같다. 미용전공 대학생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개인 능력인 자기효능감은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그룹이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그룹과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F=10.438$, $p < .001$), 목표달성을 위한 의지나 방법의 탐색 능력인 희망은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그룹이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15.942$, $p < .001$).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인 낙관주의는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그룹이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F=15.519$, $p < .001$), 실패나 역경 등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인 탄력성은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그룹과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그룹이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13.128$, $p < .001$).

[표 4-16] 최종학력에 따른 심리적 자본의 차이의 차이

		N	M	S.D	<i>F</i>	<i>p</i>	
심리적 자본	자기 효능감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111	3.52a	.817	10.438***	.000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107	3.66a	.771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36	4.01b	.521		
	희망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111	3.54a	.829	15.942***	.000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107	3.66ab	.692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36	3.85b	.680		
	낙관주의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111	3.41a	.746	15.519***	.000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107	3.52ab	.739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36	3.78b	.693		
	탄력성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111	3.54a	.734	13.128***	.000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107	3.84b	.676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36	3.92b	.814		

***: $p < .0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Duncan.: a<b

최종학력에 따른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검정한 결과는 [표 4-17]와 같다. 미용 전공 대학생의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경청 능력인 개방적 의사소통은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그룹이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F=9.206$, $p < .001$),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능력인 주도적 의사소통($F=18.376$, $p < .001$)과 공감 능력인 타인 관점 이해($F=11.445$, $p < .001$)는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그룹과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그룹이 2/3년제 대학교 재학/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7] 최종학력에 따른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N	M	S.D	F	p
휴먼 커뮤니 케이션	개방적 의사소통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111	3.15a	.909	9.206*** .000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107	3.51bc	.788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36	3.65c	.521	
	주도적 의사소통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111	2.92a	.796	18.376*** .000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107	3.43b	.797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36	3.48b	.724	
	타인 관점 이해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111	3.02a	.778	11.445*** .000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107	3.43b	.785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36	3.40b	.609	

***: $p < .0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Duncan.: a < b < c

최종학력에 따른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검정한 결과는 [표 4-18]와 같다. 학습에 대한 주의력 및 집중력인 학습 몰입($F=18.339$, $p < .001$)과 개인이 느끼는 행복이나 만족 정도인 심리적 안녕감($F=22.123$, $p < .001$)은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그룹과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그룹이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8] 최종학력에 따른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N	M	S.D	<i>F</i>	<i>p</i>
학습 몰입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111	3.21a	.764	18.339***	.000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107	3.55b	.687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36	3.69b	.531		
심리적 안녕감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111	3.25a	.715	22.123***	.000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107	3.69b	.644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36	3.87b	.527		

***: $p < .0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Duncan.: a < b

마) 직업

직업에 따른 심리적 자본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검정한 결과는 [표 4-19]와 같다. 미용 전공 대학생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개인 능력인 자기효능감은 서비스업과 전문직, 기타 그룹이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F=8.545$, $p < .001$),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나 방법의 탐색 능력인 희망은 전문직 그룹이 학생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9.382$, $p < .001$).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인 낙관주의는 전문직 그룹이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F=9.390$, $p < .001$), 실패나 역경 등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인 탄력성은 전문직과 기타 그룹이 학생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F=14.686$, $p < .001$).

[표 4-19] 직업에 따른 심리적 자본의 차이의 차이

		N	M	S.D	<i>F</i>	<i>p</i>	
심리적 자본	자기 효능감	학생	152	3.31a	.910	8.545***	.000
		회사원	17	3.55ab	.836		
		서비스업	22	3.68b	.810		
		전문직	32	3.73b	.678		
		기타	31	3.71b	.807		
	희망	학생	152	3.52a	.793	9.382***	.000
		회사원	17	3.66ab	.764		
		서비스업	22	3.83bc	.707		
		전문직	32	3.96c	.643		
		기타	31	3.84cb	.578		
	낙관주의	학생	152	3.38a	.760	9.390***	.000
		회사원	17	3.52ab	.711		
		서비스업	22	3.67ab	.738		
		전문직	32	3.84c	.688		
		기타	31	3.74bc	.649		
	탄력성	학생	152	3.38a	.809	14.686***	.000
		회사원	17	3.58ab	.800		
		서비스업	22	3.74bc	.672		
		전문직	32	3.92c	.656		
		기타	31	3.91c	.643		

***: $p < .0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Duncan.: a<b<c

직업에 따른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검정한 결과는 [표 4-20]와 같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경청 능력인 개방적 의사소통

은 기타 그룹이 학생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F=9.804$, $p<.001$),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능력인 주도적 의사소통($F=7.848$, $p<.001$)과 공감 능력인 타인 관점 이해($F=5.795$, $p<.001$)은 전문직 그룹이 학생 그룹과 회사원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20] 직업에 따른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N	M	S.D	<i>F</i>	<i>p</i>	
휴먼 커뮤니 케이션	개방적 의사소통	학생	152	3.16a	.934	9.804***	.000
		회사원	17	3.15a	.815		
		서비스업	22	3.34ab	.786		
		전문직	32	3.57bc	.762		
		기타	31	3.72c	.712		
	주도적 의사소통	학생	152	2.95a	.872	7.848***	.000
		회사원	17	3.05a	.805		
		서비스업	22	3.12ab	.784		
		전문직	32	3.46b	.739		
		기타	31	3.26ab	.715		
	타인 관점 이해	학생	152	3.04a	.877	5.795***	.000
		회사원	17	3.05a	.815		
		서비스업	22	3.15ab	.790		
		전문직	32	3.43b	.785		
		기타	31	3.37ab	.759		

***: $p<.0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Duncan.: a<b<c

직업에 따른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검정한 결과는 [표 4-21]와 같다. 학습에 대한 주의력 및 집중력인 학습 몰입($F=15.483$, $p<.001$)과 개인이 느끼는 행복이나 만족 정도인 심리적 안녕감

($F=20.348$, $p<.001$)은 전문직 그룹이 학생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21] 직업에 따른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N	M	S.D	<i>F</i>	<i>p</i>
학습 몰입	학생	152	3.01a	.818	15.483***	.000
	회사원	17	3.23ab	.711		
	서비스업	22	3.47bc	.703		
	전문직	32	3.59c	.705		
	기타	31	3.39bc	.694		
심리적 안녕감	학생	152	3.16a	.747	20.348***	.000
	회사원	17	3.42ab	.623		
	서비스업	22	3.63bc	.617		
	전문직	32	3.78c	.681		
	기타	31	3.50b	.509		

***: $p<.0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Duncan.: a<b<c

바)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소득에 따라 심리적 자본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검정한 결과는 [표 4-22]와 같다. 미용 전공 대학생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개인 능력인 자기효능감은 100만원 미만 그룹이 300~500만원 이상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F=4.433$, $p<.01$), 실패나 역경 등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인 탄력성은 500만원 이상 그룹이 100~300만원 이상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3.192$, $p<.05$).

[표 4-22]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심리적 자본의 차이의 차이

		N	M	S.D	F	p
심리적 자본	자기 효능감	100만원 미만	137	3.60b	4.433**	.004
		100~300만원 이상	85	3.43ab		
		300~500만원 이상	19	3.28a		
		500만원 이상	13	3.43ab		
	희망	100만원 미만	137	3.66	2.074	.103
		100~300만원 이상	85	3.58		
		300~500만원 이상	19	3.74		
		500만원 이상	13	3.85		
	낙관주의	100만원 미만	137	3.56	1.524	.207
		100~300만원 이상	85	3.46		
		300~500만원 이상	19	3.49		
		500만원 이상	13	3.69		
	탄력성	100만원 미만	137	3.62ab	3.192*	.022
		100~300만원 이상	85	3.40a		
		300~500만원 이상	19	3.53ab		
		500만원 이상	13	3.75b		

*: $p<.05$, **: $p<.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Duncan.: a<b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검정한 결과는 [표 4-23]와 같다.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능력인 주도적 의사소통은 100만원 미만 그룹과 500만원 이상 그룹이 300~500만원 이상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5.337$, $p<.001$).

[표 4-23]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N	M	S.D	<i>F</i>	<i>p</i>
휴먼 커뮤니 케이션	개방적 의사소통	100만원 미만	137	3.29	.696	.571
		100~300만원 이상	85	3.22		
		300~500만원 이상	19	3.21		
		500만원 이상	13	3.36		
	주도적 의사소통	100만원 미만	137	3.18b	5.337**	.001
		100~300만원 이상	85	3.02ab		
		300~500만원 이상	19	2.83a		
		500만원 이상	13	3.22b		
	타인 관점 이해	100만원 미만	137	3.21	1.561	.208
		100~300만원 이상	85	3.11		
		300~500만원 이상	19	3.04		
		500만원 이상	13	3.04		

**: $p<.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Duncan.: a<b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검정한 결과는 [표 4-24]와 같다. 검정 결과 월 평균 소득은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4-2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N	M	S.D	<i>F</i>	<i>p</i>
학습 몰입	100만원 미만	137	3.26	.751	.472	.685
	100~300만원 이상	85	3.20	.834		
	300~500만원 이상	19	3.32	.797		
	500만원 이상	13	3.22	.747		
심리적 안녕감	100만원 미만	137	3.44	.706	1.435	.218
	100~300만원 이상	85	3.29	.753		
	300~500만원 이상	19	3.39	.668		
	500만원 이상	13	3.45	.629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탄력성과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하위 요인인 개방적 의사소통, 주도적 의사소통, 타인 관점 이해 등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학습 몰입, 심리적 안녕감과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가) 성별 및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성별 및 결혼 여부 따라 각 변수들이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검증한 결과는 [표 4-25]에 제시하였고, 검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5] 성별 및 결혼 여부에 따른 각 변수들의 차이분석

성별	심리적 자본	자기효능감	통계적 유의성 없음($p=.904$)
		희망	통계적 유의성 없음($p=.132$)
		낙관주의	통계적 유의성 없음($p=.964$)
		탄력성	통계적 유의성 없음($p=.403$)
	휴먼 커뮤니 케이션	개방적 의사소통	여성 > 남성 ($p<.05$)
		주도적 의사소통	통계적 유의성 없음($p=.076$)
		타인 관점 이해	여성 > 남성 ($p<.05$)
		학습 몰입	통계적 유의성 없음($p=.061$)
		심리적 안녕감	통계적 유의성 없음($p=.133$)
결혼 여부	심리적 자본	자기효능감	통계적 유의성 없음($p=.575$)
		희망	미혼 > 기혼 ($p<.01$)
		낙관주의	통계적 유의성 없음($p=.205$)
		탄력성	미혼 > 기혼 ($p<.01$)
	휴먼 커뮤니 케이션	개방적 의사소통	통계적 유의성 없음($p=.475$)
		주도적 의사소통	통계적 유의성 없음($p=.225$)
		타인 관점 이해	통계적 유의성 없음($p=.204$)
		학습 몰입	통계적 유의성 없음($p=.358$)
		심리적 안녕감	미혼 > 기혼 ($p<.01$)

나) 연령 및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연령 및 최종학력에 따른 각 변수들이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검증한 결과는 [표 4-26]에 제시하였고, 검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6] 연령 및 최종학력에 따른 각 변수들의 차이분석

연령	심리적 자본	자기효능감	50대 이상 > 20대 ($p<.001$)
		희망	40대, 50대 이상 > 20대 ($p<.001$)
		낙관주의	50대 이상 > 20대 ($p<.001$)
		탄력성	40대, 50대 이상 > 20대 ($p<.001$)
	휴먼 커뮤니 케이션	개방적 의사소통	50대 이상 > 20대, 30대, 40대 ($p<.001$)
		주도적 의사소통	50대 이상 > 20대 ($p<.001$)
		타인 관점 이해	50대 이상 > 20대 ($p<.001$)
		학습 몰입	50대 이상 > 20대, 30대 ($p<.001$)
		심리적 안녕감	50대 이상 > 20대 ($p<.001$)
최종 학력	심리적 자본	자기효능감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 2/3/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p<.001$)
		희망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p<.001$)
		낙관주의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p<.001$)
		탄력성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p<.001$)
	휴먼 커뮤니 케이션	개방적 의사소통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p<.001$)
		주도적 의사소통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p<.001$)
		타인 관점 이해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p<.001$)
		학습 몰입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p<.001$)
		심리적 안녕감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p<.001$)

다) 직업 및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직업 및 월 평균 소득에 따른 각 변수들이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검증한 결과는 [표 4-27]에 제시하였고, 검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7] 직업 및 월 평균 소득 따른 각 변수들의 차이분석

직업	심리적 자본	자기효능감	서비스업, 전문직, 기타 > 학생 ($p<.001$)
		희망	전문직 > 학생 ($p<.001$)
		낙관주의	전문직 > 학생 ($p<.001$)
		탄력성	전문직, 기타 > 학생 ($p<.001$)
	휴먼 커뮤니 케이션	개방적 의사소통	기타 > 학생, 회사원 ($p<.001$)
		주도적 의사소통	전문직 > 학생, 회사원 ($p<.001$)
		타인 관점 이해	전문직 > 학생, 회사원 ($p<.001$)
		학습 몰입	전문직 > 학생 ($p<.001$)
		심리적 안녕감	전문직 > 학생 ($p<.001$)
월 평균 소득	심리적 자본	자기효능감	100만원 미만 > 300 ~ 500만원 이상 ($p<.01$)
		희망	통계적 유의성 없음($p=.103$)
		낙관주의	통계적 유의성 없음($p=.207$)
		탄력성	500만원 이상 > 100 ~ 300만원 이상 ($p<.05$)
	휴먼 커뮤니 케이션	개방적 의사소통	통계적 유의성 없음($p=.571$)
		주도적 의사소통	1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300 ~ 500만원 이상 ($p<.01$)
		타인 관점 이해	통계적 유의성 없음($p=.208$)
		학습 몰입	통계적 유의성 없음($p=.685$)
		심리적 안녕감	통계적 유의성 없음($p=.218$)

제 6 절 가설의 검증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이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 직접효과

가) 심리적 자본이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자본을 독립변수로 하고,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모형을 분석하면 심리적 자본의 회귀 모형은 $F=135.227(p<.000)$, Durbin-Watson 값은 1.983으로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따라서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인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54.9% 설명하고 있다.

분석 결과,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735, p<.001$). 따라서 가설 1는 채택되었다.

[표 4-28] 심리적 자본과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회귀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2.098	.083		24.021***	.000
심리적 자본	.797	.027	.735	30.216***	.000
$F=135.227(p<.001)$, Durbin-Watson=1.983, $R^2=.549$					

***: $p<.001$

종속변수 : 휴먼 커뮤니케이션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휴먼 커뮤니케이션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면, 자기효능감의 회귀모형은 $F=336.054(p<.000)$, Durbin-Watson은 1.840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종속변수인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30.1%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자기효능감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05$, $p<.001$). 따라서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표 4-29] 자기효능감과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회귀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2.358	.077		30.054***	.000
자기효능감	.396	.023	.505	16.315***	.000
F=336.054($p<.001$), Durbin-Watson=1.840, <i>adj. R</i> ² =.301					

***: $p<.001$

종속변수 : 휴먼 커뮤니케이션

이어서,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희망과 휴먼 커뮤니케이션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면, 희망의 회귀모형은 $F=256.517(p<.000)$, Durbin-Watson은 1.851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종속변수인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26.5% 설명하고 있다. 분석 결과,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희망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34, p<.001$). 따라서 가설 1-2은 채택되었다.

[표 4-30] 희망과 휴면 커뮤니케이션의 회귀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2.266	.077		28.014***	.000
희망	.403	.022	.534	18.590***	.000
F=256.517($p<.001$), Durbin-Watson=1.851, <i>adj. R</i> ² =.265					

***: $p<.001$

종속변수 : 휴면 커뮤니케이션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낙관주의와 휴면 커뮤니케이션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면, 낙관주의의 회귀 모형은 $F=307.395(p<.000)$, Durbin-Watson은 1.823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종속변수인 휴면 커뮤니케이션을 28.5% 설명하고 있다. 분석 결과,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낙관주의는 휴면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53, p<.001$). 따라서 가설 1-3은 채택되었다.

[표 4-31] 낙관주의와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회귀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2.484	.082		30.582***	.000
낙관주의	.352	.024	.453	14.188***	.000
F=307.395($p<.001$), Durbin-Watson=1.823, <i>adj. R</i> ² =.285					

***: $p<.001$

종속변수 : 휴먼 커뮤니케이션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탄력성과 휴먼 커뮤니케이션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면, 탄력성의 회귀 모형은 $F=222.579(p<.000)$, Durbin-Watson은 1.842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종속변수인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21.8% 설명하고 있다. 분석 결과,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탄력성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39, p<.001$). 따라서 가설 1-4은 채택되었다.

[표 4-32] 탄력성과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회귀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534	.122		4.430***	.000
탄력성	.761	.032	.639	23.086***	.000
F=222.579(p<.001), Durbin-Watson=1.842, <i>adj. R</i> ² =.218					

***: $p < .001$

종속변수 : 휴먼 커뮤니케이션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이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4-33]에 제시하였으며, 검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33] 심리적 자본이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

연구가설		지지 여부
가설 1	심리적 자본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1	자기효능감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2	희망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3	낙관주의는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4	탄력성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나)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자본을 독립변수로 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모형을 분석하면 심리적 자본의 회귀 모형은 $F=132.187(p<.000)$, Durbin-Watson 값은 1.992으로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따라서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을 40.8%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 미용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40, p<.001$).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표 4-34]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의 회귀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1.642	.105		15.764***	.000
심리적 자본	.763	.034	.640	23.196***	.000
$F=132.187(p<.001)$, Durbin-Watson=1.992, $R^2=.408$					

***: $p<.001$

종속변수 :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면, 자기효능감의 회귀 모형은 $F=231.268(p<.000)$, Durbin-Watson 은 1.900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을 29.8%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29, p<.001$). 따라서 가설 2-1은 채택

되었다.

[표 4-35]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회귀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1.255	.117		10.629***	.000
자기효능감	.543	.030	.529	17.303***	.000
F=231.268($p<.001$), Durbin-Watson=1.900, <i>adj. R</i> ² =.298					

***: $p<.001$

종속변수 : 심리적 안녕감

이어서,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희망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면, 희망의 회귀 모형은 $F=712.607(p<.000)$, Durbin-Watson은 1.979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을 48.3%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희망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81, p<.001$). 따라서 가설 2-2은 채택되었다.

[표 4-36] 희망과 휴면 심리적 안녕감의 회귀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1.115	.112		10.155***	.000
희망	.605	.032	.581	19.751***	.000
F=712.607($p<.001$), Durbin-Watson=1.979, <i>adj. R</i> ² =.483					

***: $p<.001$

종속변수 :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낙관주의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면, 낙관주의의 회귀 모형은 $F=395.075(p<.000)$, Durbin-Watson은 1.828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을 34.6%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낙관주의는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34, p<.001$). 따라서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표 4-37] 낙관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회귀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1.355	.110		12.074***	.000
낙관주의	.531	.031	.534	17.524***	.000
F=395.075(p<.001), Durbin-Watson=1.828, <i>adj. R</i> ² =.346					

***: $p < .001$

종속변수 :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면, 탄력성의 회귀 모형은 $F=309.509(p<.000)$, Durbin-Watson은 1.826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을 29.5% 설명하고 있다. 분석 결과,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21, p < .001$). 따라서 가설 2-4은 채택되었다.

[표 4-38] 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회귀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568	.096		5.795***	.000
탄력성	.795	.025	.521	30.216***	.000
F=309.509(p<.001), Durbin-Watson=1.826, <i>adj. R</i> ² =.295					

***: $p < .001$

종속변수 : 심리적 안녕감

미용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4-39]에 제시하였으며, 검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39]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

연구가설		지지 여부
가설 2	심리적 자본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1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2	희망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3	낙관주의는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4	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다) 심리적 자본이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자본을 독립변수로 하고, 학습 몰입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모형을 분석하면 심리적 자본의 회귀 모형은 $F=228.225(p<.000)$, Durbin-Watson 값은 1.901으로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따라서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인 학습 몰입을 43.9% 설명하고 있다.

분석 결과,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은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83, p<.001$). 따라서 가설 3는 채택되었다.

[표 4-40] 심리적 자본과 학습 몰입의 회귀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1.882	.087		19.151***	.000
심리적 자본	.760	.020	.683	27.116***	.000
$F=228.225(p<.001)$, Durbin-Watson=1.901, $R^2=.439$					

***: $p<.001$

종속변수 : 학습 몰입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학습 몰입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면, 자기효능감의 회귀 모형은 $F=1557.802(p<.000)$, Durbin-Watson은 1.873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종속변수인 학습 몰입을 64.5% 설명하고 있다. 분석 결과,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자기효능감은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91$, $p<.001$). 따라서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표 4-41] 자기효능감과 학습 몰입의 회귀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1.392	.101		13.583***	.000
자기효능감	.551	.026	.591	20.341***	.000
$F=1557.802(p<.001)$, Durbin-Watson=1.873, <i>adj.</i> $R^2=.645$					

***: $p<.001$

종속변수 : 학습 몰입

이어서,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희망과 학습 몰입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면, 희망의 회귀 모형은 $F=377.429(p<.000)$, Durbin-Watson은 1.974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종속변수인 학습 몰입을 35.0% 설명하고 있다. 분석 결과,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희망은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95, p<.001$). 따라서 가설 3-2은 채택되었다.

[표 4-42] 희망과 학습 몰입의 회귀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1.073	.088		12.287***	.000
희망	.658	.023	.695	27.971***	.000
F=377.429(p<.001), Durbin-Watson=1.974, adj. $R^2=.350$					

***: $p<.001$

종속변수 : 학습 몰입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낙관주의와 학습 몰입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면, 낙관주의의 회귀 모형은 $F=711.607(p<.000)$, Durbin-Watson은 1.912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종속변수인 학습 몰입을 46.5% 설명하고 있다. 분석 결과,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낙관주의는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86, p<.001$). 따라서 가설 3-3은 채택되었다.

[표 4-43] 낙관주의와 학습 몰입의 회귀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1.517	.096		15.584***	.000
낙관주의	.531	.025	.586	20.104***	.000
F=711.607($p<.001$), Durbin-Watson=1.912, <i>adj. R</i> ² =.465					

***: $p<.001$

종속변수 : 학습 몰입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탄력성과 학습 몰입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면, 탄력성의 회귀 모형은 $F=1411.530(p<.000)$, Durbin-Watson은 1.973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종속변수인 학습 몰입을 54.3% 설명하고 있다. 분석 결과,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탄력성은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46, p<.001$). 따라서 가설 3-4은 채택되었다.

[표 4-44] 탄력성과 학습 몰입의 회귀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778	.125		6.210***	.000
탄력성	.812	.033	.646	23.589***	.000
F=1411.530($p<.001$), Durbin-Watson=1.973, <i>adj. R</i> ² =.543					

***: $p<.001$

종속변수 : 학습 몰입

미용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이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4-45]에 제시하였으며, 검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45] 심리적 자본이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

연구가설		지지 여부
가설 3	심리적 자본은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1	자기효능감은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2	희망은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3	낙관주의는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4	탄력성은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라) 휴먼 커뮤니케이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독립변수로 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모형을 분석하면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회귀 모형은 $F=1417.530(p<.000)$, Durbin-Watson 값은 1.973으로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따라서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을 54.3% 설명하고 있다.

분석 결과, 미용 전공 대학생의 휴먼 커뮤니케이션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18, p<.001$).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표 4-46]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심리적 안녕감의 회귀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2.281	.111		21.213***	.000
휴먼 커뮤니케이션	.421	.032	.418	12.747***	.000
F=1417.530($p<.001$), Durbin-Watson=1.973, <i>adj. R</i> ² =.543					

***: $p<.001$

종속변수 : 심리적 안녕감

마) 학습 몰입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 몰입을 독립변수로 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모형을 분석하면 학습 몰입의 회귀 모형은 $F=566.900(p<.000)$, Durbin-Watson 값은 1.857으로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따라서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을 40.7% 설명하고 있다.

분석 결과, 미용 전공 대학생의 학습 몰입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06, p<.001$). 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표 4-47]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의 회귀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1.277	.115		10.796***	.000
학습 몰입	.653	.032	.606	21.336***	.000
F=566.900(p<.001), Durbin-Watson=1.857, <i>adj. R</i> ² =.407					

***: $p < .001$

종속변수 : 심리적 안녕감

2) 매개효과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떤 변인이 매개변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회귀방정식에 독립변인은 가정된 매개 변인과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이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인을 추가할 때 예측 변인의 β 계수가 유의미 수준에서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완전 매개(full mediating), β 계수가 감소하기는 하나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때는 부분 매개(partial mediating)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송지준, 2013).

가)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매개효과 검증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는 심리적 자본이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beta = .753, p < .001$), 2단계에서는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 = .640, p < .001$). 또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 심리적 자본($\beta = .166, p < .001$), 매개변인 휴먼 커뮤니케이션($\beta = .643,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p 값은 1, 2, 3단계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단계에서의 독립변인인 심리적 자본의 회귀계수 값($\beta = .640, p < .001$)이 3단계에서의 독립변인인 심리적 자본의 회귀계수 값($\beta = .166, p < .0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휴먼 커뮤니케이션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 자

본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수행한 결과, $Z=9.4785$, $p<.001$ 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 6는 채택되었다.

[표 4-48] 심리적 자본이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R^2
			B	S.E	β			
1단계	심리적 자본	→ 휴먼 커뮤니케이션	.797	.027	.735	30.216***	.000	.549
2단계	심리적 자본	→ 심리적 안녕감	.763	.034	.640	23.196***	.000	.408
3단계	심리적 자본	→ 심리적 안녕감	.198	.041	.166	4.944***	.000	.599
	휴먼 커뮤니케이션		.708	.036	.643	19.218***	.000	

***: $p<.001$

B: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오차, β : 표준화 계수

나)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는 심리적 자본이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beta = .683$, $p<.001$), 2단계에서는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 = .640$, $p<.001$). 또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 심리적 자본($\beta = .312$, $p<.001$)과 매개변인 학습 몰입($\beta = .445$,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p 값은 1, 2, 3단계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단계에서의 독립변인인 심리적 자본의 회귀계수 값($\beta =$

.640, $p < .001$)이 3단계에서의 독립변인인 심리적 자본의 회귀계수 값($\beta = .312$, $p < .0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학습 몰입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수행한 결과, $Z=7.3845$, $p < .001$ 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 7는 채택되었다.

[표 4-49] 심리적 자본이 학습 몰입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R^2
			B	S.E	β			
1단계	심리적 자본	→ 학습 몰입	.760	.020	.683	27.116***	.000	.439
2단계	심리적 자본	→ 심리적 안녕감	.763	.034	.640	23.196***	.000	.408
3단계	심리적 자본	→ 심리적 안녕감	.380	.045	.312	8.120***	.000	.501
	학습 몰입		.527	.041	.445	11.382***	.000	

***: $p < .001$

B: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오차, β : 표준화 계수

3) 변수의 영향력 분석

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심리적 자본의 영향력 분석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이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검증된 결과를 근간으로 종속변수인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자본 하위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모형을 분석하면, 모형 1의 회귀 모형은 $F=182.122(p<.000)$, 모형 2의 회귀 모형은 $F=157.100(p<.000)$, 모형 3의 회귀 모형은 $F=163.493(p<.000)$, 모형 4의 회귀 모형은 $F=152.544(p<.000)$ 이며 Durbin-Watson 값은 1.976로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또한 공차한계가 1에 가깝고, 분산 확대 지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보다 작아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 1은 종속변수인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28.7%($R^2=.287$)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 2는 종속변수인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33.7%($adj. R^2=.337$) 설명하고 있다. 또한 모형 3는 종속변수인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44.6%($adj. R^2=.446$), 끝으로 모형 4는 종속변수인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56.8%($adj. R^2=.568$) 설명하고 있다. 즉, 설정된 각 모형은 전 단계의 모형에 비해 종속변수인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점증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미용 전공 대학생의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적 자본 하위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낙관주의($\beta = .337, p<.000$), 탄력성($\beta = .223, p<.000$) 순으로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0]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이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결과

모형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통계량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	VIF
1	(상수)	2.134	.157		13.383***	.000	F=182.122*** <i>R</i> ² =.287		
	자기 효능감	.403	.044	.431	9.107***	.000		1.000	1.000
2	(상수)	1.811	.165		10.820***	.000	F=157.100*** <i>adj. R</i> ² =.337		
	자기 효능감	.206	.058	.220	3.428***	.000		.552	1.815
	희망	.321	.063	.315	5.146***	.000		.552	1.8
3	(상수)	.538	.224		2.293*	.016	F=163.493*** <i>adj. R</i> ² =.446		
	자기 효능감	.044	.057	.047	.667	.443		.478	2.087
	희망	.184	.061	.180	2.888**	.004		.504	1.981
	낙관 주의	.572	.073	.434	7.620***	.000		.580	1.720
4	(상수)	.565	.221		2.451*	.012	F=152.544*** <i>adj. R</i> ² =.568		
	자기 효능감	.053	.056	.057	.848	.345		.477	2.092
	희망	.086	.065	.084	1.208	.191		.420	2.372
	낙관 주의	.444	.080	.337	5.400***	.000		.470	2.121
	탄력성	.220	.060	.223	3.522***	.000		.466	2.14

***: $p < .001$

종속변수 : 휴먼 커뮤니케이션

나) 학습 몰입에 대한 심리적 자본의 영향력 분석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이 학습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고, 검증된 결과를 근간으로 종속변수인 학습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자본 하위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모형을 분석하면, 모형 1의 회귀 모형은 $F=139.404(p<.000)$, 모형 2의 회귀 모형은 $F=148.151(p<.000)$, 모형 3의 회귀 모형은 $F=183.647(p<.000)$, 모형 4의 회귀 모형은 $F=192.094(p<.000)$ 이며 Durbin-Watson 값은 2.007로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또한 공차한계가 1에 가깝고, 분산 확대 지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1은 종속변수인 학습 몰입을 29.9%($R^2=.299$)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 2는 종속변수인 학습 몰입을 39.8%($adj. R^2=.398$) 설명하고 있다. 또한 모형 3은 종속변수인 학습 몰입을 41.1%($adj. R^2=.411$), 끝으로 모형 4는 종속변수인 학습 몰입을 54.4%($adj. R^2=.544$) 설명하고 있다. 즉, 설정된 각 모형은 전 단계의 모형에 비해 종속변수인 학습 몰입을 점증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미용 전공 대학생의 학습 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적 자본 하위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탄력성($\beta = .274, p<.000$), 희망($\beta = .267, p<.000$), 자기효능감($\beta = .201, p<.000$) 순으로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1]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이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결과

모형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통계량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	VIF
1	(상수)	.791	.179		4.348***	.000	F=139.404*** $R^2=.299$		
	자기 효능감	.615	.051	.544	12.123***	.000		1.000	1.000
2	(상수)	.252	.177		1.323	.155	F=148.151*** $adj. R^2=.398$		
	자기 효능감	.285	.062	.253	4.462***	.000		.552	1.815
	희망	.535	.067	.434	7.933***	.000		.552	1.8
3	(상수)	.317	.257		1.333	.217	F=183.647*** $adj. R^2=.411$		
	자기 효능감	.213	.066	.188	3.312**	.001		.478	2.087
	희망	.473	.070	.384	6.812***	.000		.504	1.981
	낙관주의	.256	.084	.161	3.127**	.002		.580	1.720
4	(상수)	.281	.250		1.215	.265	F=192.094*** $adj. R^2=.544$		
	자기 효능감	.227	.064	.201	3.624***	.000		.477	2.092
	희망	.332	.074	.267	4.503***	.000		.420	2.372
	낙관주의	.071	.091	.043	.659	.447		.470	2.121
	탄력성	.324	.068	.274	4.816***	.000		.466	2.14

***: $p < .001$

종속변수 : 학습 몰입

다)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심리적 자본의 영향력 분석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검증된 결과를 근간으로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자본 하위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모형을 분석하면, 모형 1의 회귀 모형은 $F=197.152(p<.000)$, 모형 2의 회귀모형은 $F=153.069(p<.000)$, 모형 3의 회귀 모형은 $F=126.284(p<.000)$, 모형 4의 회귀 모형은 $F=397.483(p<.000)$ 이며 Durbin-Watson 값은 1.958로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또한 공차한계가 1에 가깝고, 분산 확대 지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1은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을 26.2%($R^2=.262$)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 2는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을 36.2%($adj. R^2=.362$) 설명하고 있다. 또한 모형 3는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을 41.5%($adj. R^2=.415$), 끝으로 모형 4는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을 52.6%($adj. R^2=.526$) 설명하고 있다. 즉, 설정된 각 모형은 전 단계의 모형에 비해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을 점증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적 자본 하위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희망($\beta = .282, p<.000$), 낙관주의($\beta = .257, p<.000$), 자기효능감($\beta = .188, p<.000$), 탄력성($\beta = .136, p<.05$) 순서로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2]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결과

모형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통계량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	VIF
1	(상수)	1.247	.147		8.525***	.000	F=197.152*** <i>R</i> ² =.262		
	자기 효능감	.590	.041	.601	14.177***	.000		1.000	1.000
2	(상수)	.778	.146		5.399***	.000	F=153.069*** <i>adj. R</i> ² =.362		
	자기 효능감	.303	.051	.307	5.757***	.000		.552	1.815
	희망	.467	.056	.434	8.361***	.000		.552	1.8
3	(상수)	.191	.203		.922	.355	F=126.284*** <i>adj. R</i> ² =.415		
	자기 효능감	.180	.052	.184	3.530**	.001		.478	2.087
	희망	.362	.055	.338	6.584***	.000		.504	1.981
	낙관 주의	.435	.066	.316	6.593***	.000		.580	1.720
4	(상수)	.173	.202		.757	.391	F=397.483*** <i>adj. R</i> ² =.526		
	자기 효능감	.186	.051	.188	3.669***	.000		.477	2.092
	희망	.302	.062	.282	4.971***	.000		.420	2.372
	낙관 주의	.354	.073	.257	4.902***	.000		.470	2.121
	탄력성	.141	.055	.136	2.411*	.015		.466	2.14

***: $p < .001$

종속변수 : 심리적 안녕감

제 5 장 결론

제 1 절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용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생 남, 여 254명을 대상으로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변인 및 조작적 정의와 설문 문항들은 문헌 고찰과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목적에 따라 보완하고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 설문과 자기기입식 설문을 활용하여 대면으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SPSS Ver. 26.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주성분 분석, 베리 맥스, 상관관계분석, 독립 표본 t 검정(t-test), 일원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심리적 자본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 탄력성’으로 분류되었고 심리적 안녕감, 휴먼 커뮤니케이션, 학습 몰입은 하나의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 결과, 심리적 자본의 ‘자기효능감’은 ‘희망’, ‘낙관주의’, ‘회복 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개방적 의사소통’, ‘주도적 의사소통’, ‘타인 관점 이해’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심리적 자본의 ‘희망’은 ‘낙관주의’, ‘회복 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개방적 의사소통’, ‘주도적 의사소통’, ‘타인 관점 이해’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심리적 자본의 ‘낙관주의’는 ‘회복 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개방적 의사소통’, ‘주도적 의사소통’, ‘타인 관점 이해’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심리적 자본의 ‘회복

탄력성'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개방적 의사소통', '주도적 의사소통', '타인 관점 이해'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주도적 의사소통', '타인 관점 이해'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주도적 의사소통'은 '타인 관점 이해'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타인 관점 이해'는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학습 몰입은 심리적 안녕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셋째, 변수들의 차이 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성별에 따른 개방적 의사소통과 타인 관점 이해에서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 심리적 자본의 희망과 회복 탄력성은 미혼이 기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감은 기혼이 미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심리적 자본의 차이에서 자기효능감은 50대 이상 그룹이 20대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희망은 40대 그룹과 50대 이상 그룹이 20대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낙관주의는 50대 이상 그룹이 20대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회복 탄력성은 40대 그룹과 50대 이상 그룹이 20대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에서는 개방적 의사소통은 50대 이상 그룹이 20대, 30대, 40대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주도적 의사소통은 50대 이상 그룹이 20대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타인 관점 이해도 역시 50대 이상 그룹이 20대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에서는 학습 몰입은 50대 이상 그룹이 20대, 30대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감은 50대 이상 그룹이 20대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따른 심리적 자본에서 자기효능감은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그룹이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그룹과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그룹에 비

해서 높게 나타났고, 희망은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그룹이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그룹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낙관주의는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그룹이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그룹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고, 회복 탄력성은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그룹과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그룹이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그룹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따른 휴먼 커뮤니케이션에서 개방적 의사소통은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그룹이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그룹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며, 주도적 의사소통, 타인 관점 이해는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그룹과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그룹이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따른 학습 몰입에서 학습 몰입, 심리적 안녕감은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그룹과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그룹이 2/3년제 대학교 재학/졸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심리적 자본에서는 자기효능감은 서비스업과 전문직, 기타 그룹이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희망은 전문직 그룹이 학생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낙관주의는 전문직 그룹이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회복 탄력성은 전문직과 기타 그룹이 학생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휴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개방적 의사소통은 기타 그룹이 학생 그룹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며, 주도적 의사소통, 타인 관점 이해는 전문직 그룹이 학생 그룹과 회사원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학습 몰입, 심리적 안녕감은 전문직 그룹이 학생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심리적 자본에서는 자기효능감은 100만원 미만 그룹이 300~500만원 이상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회복 탄력성은 500만원 이상 그룹이 100~300만원 이상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휴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주도적 의사소통은 100만원 미만 그룹과 500만원 이상 그룹이 300~500만원 이상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학습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넷째,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효과와 매개효과의 가설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검증결과 직접 효과에서 가설 1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는 심리적 자본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가설 1-1 자기효능감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는 자기효능감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가설 1-2 희망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는 희망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가설 1-3 낙관주의는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는 낙관주의는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3은 채택되었다. 가설 1-4 회복 탄력성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는 회복 탄력성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4는 채택되었다. 가설 2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는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가설 2-1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는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가설 2-2 희망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는 희망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난 가설 2-2는 채택 되었다. 가설 2-3 낙관주의는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는 낙관주의는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가설 2-4 회복 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는 회복 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4는 채택되었다. 가설 3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은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는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은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가설 3-1 자기효능감은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전제는 자기효능감은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가설 3-2 희망은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는 희망은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2는 채택되었다. 가설 3-3 낙관주의는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는 낙관주의는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3은 채택되었다. 가설 3-4 회복 탄력성은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는 회복 탄력성은 학습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4는 채택되었다. 가설 4 미용 전공 대학생의 휴먼 커뮤니케이션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는 미용 전공 대학생의 휴먼 커뮤니케이션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채택되었다. 가설 5 미용전공 대학생의 학습 몰입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는 미용 전공 대학생의 학습 몰입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채택되었다.

가설 검증 결과 매개효과에서 가설 6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휴먼 커뮤니케이션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휴먼 커뮤니케이션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은 채택되었다. 가설 7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학습 몰입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학습 몰입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7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는 심리적 자본에 의해서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이 이에 상응하여 반응하게 되고 이러한 관계는 심리적 안녕감 증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심리적 자본인 자기효능감, 회복 탄력성, 낙관주의, 희망이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의 집중도와 흥미인 학습 몰입이 높아져 전공에 대한 확신, 대인관계, 학업관리,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심리적 자본은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이 향상되게 하고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미용 전공 대학생들이 뷰티 산업 시대에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는 미용 전공 대학생들이 뷰티 산업 시대에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로 여겨질 것으로 사료된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미용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의 매개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어,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근거가 되고자 한다.

첫째, 초·중등 어린 학생들의 미용 관심도가 높아져 어린 나이에 미용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린 나이에는 흥미도가 빠르게 낮아질 수 있고 스스로를 타인과 비교를 하며 자신감이 하락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크게 가지고 있는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분석한다면 더욱 전문적이고 유능한 미용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미용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용을 전공으로 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남성의 비율을 높여 분석한다면 미용 전공자들의 문제를 일반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만을 도출하여 분석을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과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그리고 학습 몰입의 하위 요인들을 도출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를 하게 된다면 미용 전공자들의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미용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자기 스스로를 믿으며 전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안정적인 대인관계와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갖추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어 심리적 자본, 심리적 안녕감, 휴먼 커뮤니케이션, 학습 몰입을 향상시켜 미용산업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더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권정혁. (2021). “카지노 산업에서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관계감정과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관계감정을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혜진. (2020). “가족건강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미선, 임선영, 차선경. (2019). “다 학제 전공에서 본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탐색적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소통학보, Vol.18 No.1
- 김규영. (2021). “평생학습관 중장년 성인학습자 특성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홍. (2019).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핵심역량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대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나연. (2014). “조직지원인식과 조직공정성이 심리적 자본을 통해 행위 결과에 미치는 영향:서번트 리더십의 조절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점. (2008). “태권도 참여형태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정. (2018). “부모학업성취압력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 학업정서의 매개효과와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림. (2022). “코로나 19 상황 속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경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과”.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빈. (2017). “매개된 대인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대인미디어 선택 패턴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연. (2013). “변혁적 리더십이 심리적 자본 및 조직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태욱. (2018). “진정성 리더십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LMX의 질의 매개변수와 긍정심리자본의 조절변수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별모. (2020).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심리적자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 호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양신. (2021). “대학생 긍정심리자본, 휴먼 커뮤니케이션 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구조모형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미재. (2018). “영재학생의 정서지능,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자기효능감 및 학습몰입과의 구조적관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윤. (2017).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학습만족 예측 : 긍정심리자본과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정원. (2016). “미용서비스 제공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고객의 감정 반응과 브랜드 이미지 및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혜진. (2015). “대인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기효능감,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경화. (2014). “성인학습자의 학점은행제에 대한 참여 유의가와 학습몰입 관계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새인. (2021). “심리적 자본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상사의 커뮤니케

- 이선 유형의 조절효과”.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지준. (2013).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서울: 21세기사”. pp.127-128.
- 신건권. (2013). “Amos 20 통계분석 따라하기, 서울: 청람”. p.87.
- 신선해. (2020).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주인의식,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 간의 관계”.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유봉. (2120). “직무순환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자본의 매개효과와 조직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정진. (2014). “대인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직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연구 - 상황불안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Vol.38 No.3,
- 양동화. (2021). “의대생의 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및 심리자본 단체교육 연구”. 안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은호. (2012).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이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재원. (2021). “노인들의 스포츠활동경험이 회복탄력성과 사회적지지, 심리적 안녕감 및 지속적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정우. (2012).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유머대처가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요우가. (2021). “비영어 전공 중국 대학생의 영어학습성취도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습몰입의 영향관계”.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소현. (2019). “노인의 죽음불안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활동 참여 만족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희실. (2016). “특 1급 호텔 식음료·조리종사원의 심리적 자본이 열의, 소진, 만족 및 몰입에 미치는 영향 : 일-가정 갈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어수관. (2019). “의료기관 구성원의 긍정심리적자본이 조직효과성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영. (2011). “수간호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일반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 스트레스 및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민. (2017). “청소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공감 능력이 갈등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경. (2022).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훈영. (2012). 연구조사방법론. 서울: 청람. p.66.
- 이준철. (2020). “상사 대인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란. (2021). “미용학원강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학습자들의 재수강의도에 미치는 영향 : 학습몰입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상혁. (2017). “난타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대전대학교 보건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인환. (2015). “호텔 종사원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진범. (2023).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분석”. 동방문화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주. (2015). “항공사 승무원 취업준비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 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은. (2022). “중장년 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몰입 및 평생학습 지속성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주희. (2020). “대학생의 성인애착, 자기자비, 탈중심화, 반추,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진오. (2019). “심리적 자본이 종업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동근. (2022). “호텔 종사원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직무열의와 고객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라. (2023). “관광계열 대학생의 긍정 심리자본이 자기주도학습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 학습동기의 조절효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수정. (2023). “영유아교사의 심리적안녕감과 직무스트레스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현정. (2018).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기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대인관계유능성의 매개효과”.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유미. (2017). “전문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율성지지,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습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송문. (2020). “호텔이용객이 지각한 언어적·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요인이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 휴리스틱 체계적모델을 적용하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요한. (2011). “호텔 종사원의 심리적 자본이 서비스회복, 서비스품질, 고객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영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국외문헌

- Baron R. M. & Kenny D.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pp.1173–1182.
- Luthans, F.(2002). The need for and meaning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3(6) 695–706.
- Luthans, F.(2002b).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Developing and Managing Psychological Strengths,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Vol.* 16(1). pp. 57–72
- Luthans, F., & Youssef, C. M.(2007). Emerging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Management*, 33(3), 321–349.
- Mehrabian, A.& Russell, J. A.(1974). An approach to environmental psychology. Cambridge. MA: M IT press. 416(1). p257
- Rubin, R. B.(1990). “Communication competence”. In G. M. Phillips & J. T. Wood(Eds.). 『Speech communication: Essays to commemorate the 75th anniversary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94–129.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3. 웹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s://academyinfo.go.kr/mjrinfo/mjrinfo0450/doInIt.do>
(2023.09.17.)

설 문 지

본 설문은 '미용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에 관한 연구를 위한 것으로, 미용전공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심리적 자원과 역량을 향상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 해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별 제1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비밀 보장 되며 학술적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 관련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023년 8월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지도교수 : 박 경 옥
연 구 원 : 윤 지 우
연락처 : 010-3174-6162
E-Mail : neck323@naver.com

I. 다음 문항들은 ‘ 심리적 자본 ’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설문에는 정답이 없으니 귀하의 평소 생각에 가장 가까운 항목에 체크 (✓)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기에 비록 실패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나 자신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심리적인 동요를 줄이기 위해서 과거를 버리고 미래에 대해 꿈꾼다.	①	②	③	④	⑤

4. 좋지 않은 결과 후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 자신감 회복을 위해 노력을 지속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실패에 대한 느낌은 짧게 갖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6. 학습 능률이 떨어지면 더욱 많은 학습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지난 과거에서 벗어나 다가올 미래에서 희망을 찾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학습 능력은 꾸준한 노력으로 성장한다고 굳게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의지는 더 좋은 결과를 예상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학습 능력은 자신감 있는 수업 참여를 통해 나타난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오늘 스트레스는 오늘 해결하고 내일은 맑은 정신을 가지려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일은 다시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지금은 행복하지만, 언제든지 어려움은 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미용에 관련된 학습은 긴 안목으로 천천히 깊게 생각을 하는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잘 될 것이라 믿고 하루하루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학습 능력이 뒤처지는 누군가가 보이면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긴장을 줄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학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원인을 분석하여 빨리 극복 하는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고객들을 끌어 올 수 있는 자신감과 나만의 비법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비용과 관련한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지금은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에 적극적으로 보완하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4.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를 다진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 문항들은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설문에는 정답이 없으니 귀하의 평소 생각에 가장 가까운 항목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해야 할 일(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자신을 주변인들과 비교했을 때, 내 자신이 흐뭇하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경험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 문항들은 ‘ 휴먼 커뮤니케이션 ’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설문에는 정답이 없으니 귀하의 평소 생각에 가장 가까운 항목에 체크 (✓)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도 의견을 잘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고민을 잘 털어 놓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의 주장을 귀담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상대방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만큼만 나 또한 상대방에게 나의 속을 드러낸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 뿐만이 아닌 표정이나 몸짓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받으면 분명하고 조리 있게 내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상대방에게 감정을 배려하고 있는것을 말이나 몸짓으로 드러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한 말을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 하면서 대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 문항들은 ‘ 학습 몰입 ’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설문에는 정답이 없으니 귀하의 평소 생각에 가장 가까운 항목에 체크 (✓)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학습 할 때 몰입되는 시간이 빠르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습을 할 때 완전히 집중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습에 집중할 때 시간이 흘러가는는 속도가 평소보다 빠르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독특한 학습 몰입 방법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강의를 듣기 전 해당하는 학습 부분을 선행하면 강의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V. 귀하의 ‘ 인구통계학적 특성 ’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의 결혼 여부	① 미혼 ② 기혼
3. 귀하의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4. 귀하의 최종학력	① 고졸이하 ② 2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③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④ 대학원 졸업(재학/수료)
5. 귀하의 직업	① 학생 ② 회사원 ③ 서비스업 ④ 전문직 ⑤ 공무원 ⑥ 자영업 ⑦ 기타
6. 귀하의 월 평균 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500만원 미만 ④ 500만원 이상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BSTRACT

The psychological capital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Human
Communication and Learning Commitment -

Yun, Ji-Woo

Major in Make-up Art

Dept. of Beauty Art & Design

The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f beauty college students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human communication and learning immersion on 254 men and women majoring in beauty. The variables of the study, operational definitions, and survey items were modified and supplemented according to the purpose by referring to literature review and prior research. The survey method was collected using face-to-face self-fill questionnaires and online surveys. Collected Materials were used to perform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main ingredient analysis, Varimax, correlation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t-test), one-way variance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Ver. 26.0 Statistics Package program. First,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capital was classified as "self-efficacy," "hope," "optimism," and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human

communication, and learning immersion were judged to be one factor. Second,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the "self-efficacy" of psychological capital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ope," "optimism," and "resilience"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human communication's "open communication", "lead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other people's perspectives". In additio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learning immer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hope" of psychological capital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optimism" and "resilience" a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open communication," "directed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of others' perspectives" of human communication. In additio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learning immer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ptimism of psychological capital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resilience', a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open communication', 'directed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of other perspectives' of human communication. In additio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learning immer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elasticity" of psychological capital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open communication," "directed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of others' perspectives" of human communication. In additio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learning immer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Learning immersi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Thir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differences of variables, in difference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women recognize higher than men in both open communication according to gender and understanding of other people. In difference in marriage status, the hope and resilience of psychological capital were relatively higher for unmarried people than for married peop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relatively higher for married people than for unmarried people. In difference in psychological capital depending on age, groups in their 50s and older showed higher self-efficacy than those in their 20s, while groups in their 40s and 50s showed higher hope than those in their 20s. In addition optimism was also higher in those in their 50s and older compared to those in their 20s, and resilience was higher in those in their 40s and 50s and older compared to those in their 20s. In differences in human communication according to age, open communication is higher for groups in their 50s and older than those in their 20s, 30s and 40s, while leading communication is higher for groups in their 50s and older than those in their 20s. In addition, groups in their 50s and older also showed higher understanding of other people's

perspectives than those in their 20s. In difference between learning immer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age, groups in their 50s and older showed higher learning immersion than those in their 20s and 30s, while groups in their 50s and older showed higher psychological well-being. The psychological capital self-efficacy of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was higher in graduate school enrollment/completion/graduation group than in 2/3 year university enrollment/graduation group and 4 year university enrollment/graduation group, and Hope was higher in the graduate school enrollment/completion/graduation group than in 2/3 year university enrollment/graduation group. Optimism was higher in graduate school enrollment/completion/graduation groups than in 2/3 year university enrollment/graduation groups, and resilience was higher in graduate school enrollment/completion/graduation groups and 4 year university enrollment/graduation groups than 2/3 year university. Open communication in human communication based on highest level of education was higher in graduate school enrollment/completion/graduation group than in 2/3 year university enrollment/graduation group, in addition Lead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s were higher in the graduate school enrollment/completion/graduation group and the 4 year university enrollment/graduation group than the 2/3 year university enrollment/group. Learning immer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ased on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were higher graduate school enrollment/completion/graduation groups and 4 year college enrollment/graduation groups than 2/3 year college enrollment/graduation. In the psychological capital of jobs, self-efficacy was higher in the service industry, professionals, and other groups than students, and hope was higher in the professional group than in the student group. Optimism was higher in the professional group than in the student group, and resilience was higher in the professional and other groups than in the student group. In human communication according to jobs, open communication was higher in other groups than in student groups, and leading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of other people's perspectives were higher in professional groups than student groups and office workers. In terms of learning immer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jobs, professional groups showed higher learning immer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an student groups. In terms of psychological capital based on average monthly income, groups with less than 1 million won showed higher self-efficacy than groups with more than 3 to 5 million won, and groups with more than 5 million won showed higher

resilience than those with more than 1 to 3 million won. In human communication based on average monthly income, groups with less than 1 million won and groups with more than 5 million won showed higher leadership communication compared to those with more than 3 to 5 million won.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learning immer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ased on average monthly income. Fourth, the results of the direct and intermediary effects hypothesi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impact of human communication and learning immersion between psychological capi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re as follows. Hypothesis 1 was adopte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hypothesis because the premise that psychological capital of beauty college students has a positive(+) effect on human communic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human communication. Hypothesis 1-1 self-efficacy, hypothesis 1-2 hope, hypothesis 1-3 optimism, and hypothesis 1-4 resilience were all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human communication. Hypothesis 2 The premise that psychological capital of beauty college students has a positive(+)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beauty college students, so hypothesis 2 was adopted. Hypothesis 2-1 self-efficacy, hypothesis 2-2 hope, hypothesis 2-3 optimism, and hypothesis It was found that 2-4 resilience had a positive (+)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Hypothesis 3 The premise that psychological capital of beauty college students has a positive(+) effect on learning immers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learning immersion, so hypothesis 3 was adopted. Hypothesis 3-1 self-efficacy, hypothesis 3-2 hope, hypothesis 3-3 optimism, and hypothesis 3-4 resilience were all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learning commitment. Hypothesis 4 The premise that human communication of beauty college students has a positive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it has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beauty college students, and hypothesis 4 was adopted. Hypothesis 5 The assumption that beauty college students' learning immersion has a positive(+)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It was found to have a good (+)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hypothesis 5 was adopted. As a result of hypothesis verification, hypothesis 6 was adopted because human communication has a mediating effect in relation to psychological capi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beauty college students. Hypothesis 7 The premise that learning immersion has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api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beauty college students was adopted as hypothesis 7 was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hows that human communication and learning immersion respond accordingly to psychological capital, and this relationship has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psychological well-being. When psychological capital, which is self-efficacy, resilience, optimism, hope, is increases, human communication throw people, learning concentrativeness and interest learning immersion are increase. So it is important factor that helps to improve psychological well-being because it positive affect on confidence in major, personal relationship, study management, self-esteem. Through this study, the psychological capital of beauty college students can improve human communication and learning immersion, and have a positive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t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beauty college students to grow into professionals from the era of beauty industry.

【Key word】 Beauty college student, Human communication, Learning immersion, Psychological capital, Psychological well-being